

## “마스크 다시 써라”

### Cover story 델타 변종 확산

하루 10만명 델타 확산 속 방역 급선회  
“백신 맞아도 돌파 가능” CDC 자료 충격

코로나19 사태가 델타 변종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다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한동안 가라앉고 있던 코로나19이 델타라는 변종을 타고 미국에 급격히 퍼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의 감염사례는 2월 7일 이래 처음으로 10만건을 넘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해제를 선언한지 불과 한달여 만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성급한 판단으로 사태가 확산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자료도 공개됐다.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 확보해 보도한 CDC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델타 변종은 감염력이 에볼라, 스페인 독감, 일반 감기, 수두(치킨폭스)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또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은 물론 감염 백신 접종자에 의한 전염력 또한 비접종자 수준과 같다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CDC는 백신 접종자라도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의 자기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6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pexels

### 메디케어

파트 A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3면

### 소셜연금

연금 받다 취소 가능? 5면

### IRA 알아보기

개인은퇴구좌 적립금은 8면

### 은퇴 저축

매년 수입의 15%씩 저축 10면

### Cover Story

코로나 델타 변종 확산 16·17면

### 장례비

코로나 19으로 사망했다면 18면

### 간병

간병인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23면

### 잘먹고 잘살기

홍지은 기자의 웰빙이야기 27면

### Culture & art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8·29면

### 칼럼

김동희 칼럼 30면

### 알립니다

## ‘US 메트로 뉴스’ 가 시카고판 발행합니다

US 메트로뉴스 시카고 판은 총 32 페이지로 제작되며 앞으로 뉴욕, 시애틀, 하와이 등 미전역에 배포 예정입니다. ▶기사 5면

## USmetronews

매월 첫번째 목요일 선보이는 ‘US 메트로 뉴스’는 생생한 정보, 유익한 읽을 거리와 따뜻한 소통, 맛있는 이야기를 담은 웰빙가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contact@usmetronews.com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leenleegallery.com

#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HMO의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까요?



보험에 가입하시기 전에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치과**

연간 리미트 \$1500 선에서 다양한 치과 진료 혜택 보장  
코페이 \$0 정기 check업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침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침술과  
카이로프랙틱이 일부 플랜은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연간 평균 18회 제공 (보험사에 따라 24~36회 까지 보장)

**3**  **안경**

대다수 안경테 (\$200 까지), 렌즈, 눈검사 등 전체 보장  
(코스트코, 계약되어 있는 다수의 한인 안경점)

**4**  **보청기**

귀 안에 쏙 들어가는 최신 보청기 보험 플랜에 따라  
\$1000 ~2000 까지 보상

**5**  **일반의약품 (OTC)**

보험사 플랜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 \$100 정도  
현금을 데빗카드에 입금  
진통제 부터 파스,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 처방약이 아닌  
제품을 위한 OTC 구매 지원 제공

**6**  **해외 여행시  
응급치료**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메디케어 HMO 플랜에 따라 적은 곳은 5만 달러에서  
많은 곳은 100만 달러까지 커버

**7**  **차량 제공**

고령의 시니어가 병원이나 주치의 방문 시  
필요한 교통편 제공. 연간 리미트 24회까지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8**  **운동**

“실버스니커즈” 연계된 24시간 피트니스,  
YMCA 등 전국 1만 4000여 곳의  
유명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보험사 플랜에 따라 골프비용 한달에 \$45 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발기부전  
치료제**

주치의 처방시 매달 4~6 알의 발기부전치료제  
(바이아그라, 시알리스) 제공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과 거의 동일한 효능의  
제네릭 치료제가 제공

**10**  **기타 혜택**

어떤 플랜은 퇴원 후 3~5일간 식사 자택으로 배달  
당뇨 시니어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인  
프리스타일 리브레 제공 등



3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휴매나**

**웰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헬스넷**

**브랜드 뉴데이**

**블루실드**

**에트나  
에스티바**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90% 이상의 한인 의사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가입되어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파트 A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10% 벌금

메디케어는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고 있는 동안 평생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65세 첫 가입 기간을 잊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직장 제공 건강보험이 연방정부가 정해 놓은 건강 보험 기준에 맞을 정도로 충분한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65세 첫 가입 기간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벌금은 파트 A, 파트 B, 그리고 처방전 플랜인 파트 D 모두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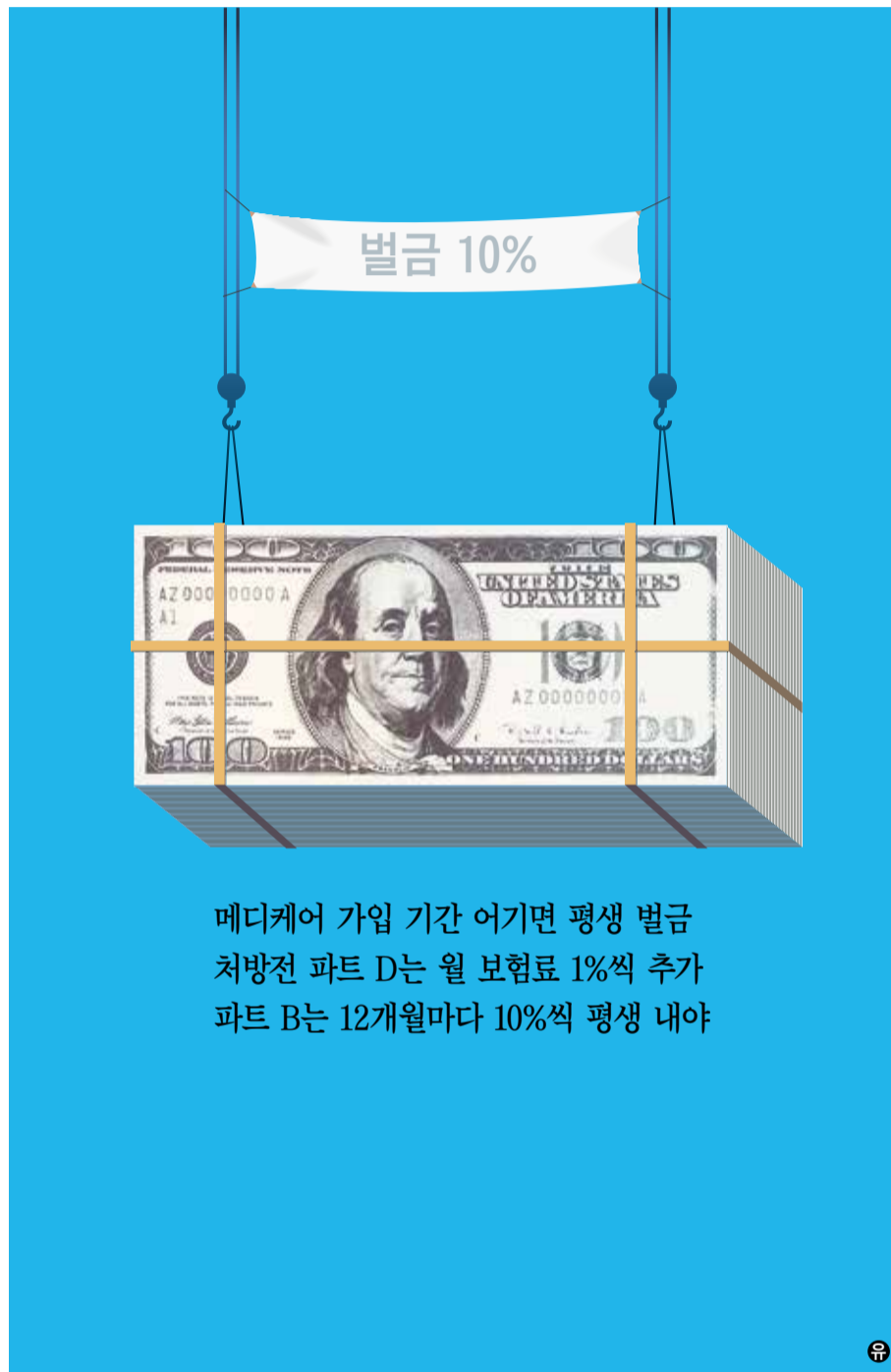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건강보험이다. 파트 A는 병원 입원비를 커버해 주고 파트 B는 의사 진료비, 파트 D는 처방전 약품을 커버해주는 플랜이다.

그렇다면 왜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를 제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까.

만약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제때 가입하고 건강한 사람은 가입하지 않고 미룬다면 메디케어에는 건강이 나쁜 사람만 가입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운영되는 건강 보험 특성상,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만 가입한다면 건강보험의 운영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건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입 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 통지서를 보내지는 않는다.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입하면 가입하지 않고 미뤘던 기간 만큼 벌금을 부과해 매달 평생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평생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메디케어 가입 기간 어기면 평생 벌금  
처방전 파트 D는 월 보험료 1%씩 추가  
파트 B는 12개월마다 10%씩 평생 내야

다면 벌금도 평생 낼 필요는 없다.

### 파트 A

소셜 시큐리티 연금(소셜연금) 또는 철도 은퇴위원회 연금을 받는 사람은 65세 되는 달부터 파트 A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그런데 아직 이들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65세가 되기 전 반드시 신청해 가입해야 한다.

파트 A는 부부인 경우 둘 중 하나가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이상 냈다면 월 페이먼트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무료라는 말이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40 크레딧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65세가 됐을 때 돈을 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야 한다. 참고로 근로 크레딧이 30 미만이면 471달러, 30~39 크레딧이면 259달러를 내고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가입 시기를 놓쳤다면 가입하지 않은 12개월마다 10%씩 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 벌금은 가입하지 않은 해의 두 배 동안 계속된다.

예를 들어, 파트 A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2년 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면 4년 동안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수입이 낮고 여유 재산이 없다면 극빈자 지원용 메디케이드(메디칼)에서 파트 A, B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고 파트 D 역시 '엑스트라 헬프' 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벌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해 주는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벌금 없이 특별 가입 기간을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

### 파트 B

파트 A 가입과 동시에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달 3개월 전부터 생일 달을 지난 3개월까지 총 7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 기간중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매 12개월마다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 또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반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혜택도 그해 7월부터 시작되므로 가입 후 4개월 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나 노조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장애 보험이 있다면 보험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 보험이 연방 정부가 승인하는 1차 보험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직장 보험을 잃었다면 잃은 달부터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벌금을 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COBRA 보험은 직장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어에 반드시 가입해야 나중에 벌금을 내지 않는다.

### 파트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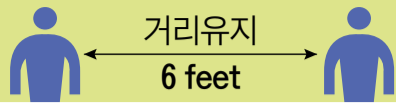
파트 B와 같이 첫 가입 기간에 반드시 파트 D에 가입해야 한다. 첫 가입 기간 7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은 매 1개월 전국 평균 보험료 당 1%씩 벌금으로 가산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월 40달러인데 15개월 동안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매달 6달러씩 벌금이 추가된다. 따라서 매달 46달러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 벌금은 메디케어 파트 D가 포함된 파트 C(주치의 제도-MAPD) 플랜에 가입해도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트 D 역시 직장이나 노조에서 제공하는 처방전 플랜이 있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보험이 끝났거나 첫 가입 기간을 지나 63일 동안 정부 인정 처방전 플랜이 없다면 그 이후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 배우자 중 낮은 연금 먼저 신청 큰 쪽은 나중에

## 62세 연금 신청할 때 고려할 점

모아둔 자금 별로 없다면 일찍 배우자 위한다면 늦게 신청 건강 등 고려해 시기 결정 바람직

많은 한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다. 일찍 받으면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아야 할 연금보다 적은 돈을 평생 받게 되므로 손해가 크다. 그렇다고 70까지 버티면 재정이 쪼들리고 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늦춰 받을 수도 없다. 무엇보다 요즘 소셜 연금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 아예 일찍 받자는 한인들도 많다.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인 1/3(34.3%)은 이때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일찍 받을 때 어떤 점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까. 앞서 설명한 대로 62세에 조기 수령하면 대략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는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아도 된다면 물론 일찍 받아도 될 것이다.

### 부부 중 연금액이 큰 배우자는 늦게 신청해 받는다

부부가 소셜 연금을 최대 금액까지 받으려면 연금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남편 또는 부인 중 한 명의 연금이 더 높다면 높은 쪽 연금은 가능한 늦게 신청해 받는 것이 좋다.

우선 낮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62세에 먼저 신청한다. 이후 돈을 많이 받는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최대한 늦춰 신청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일찍 신청하면 연금은 일찍 신청한 만큼의 퍼센테이지 비율로 줄어든다. 연금을 많이 받는 배우자가 늦게 신청하면 돈은 매년 8%씩 불어났다. 또 돈을 많이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불어난 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생활에 필요한 수입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적은 쪽 배우자부터 신청하고 다른 배우자의 연금을 계속 불려나가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받으면 된다.

◇모아둔 자금 별로 없다면 62세에 신청 보통 60세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들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진급 기회가 막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은퇴 수입은 주로 소셜 연금과 은퇴를 대비한 투자 계좌에서 조달된 소셜 연금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은퇴 계좌에 있는 투자금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은퇴 계좌에서 더 많은 돈을 찾아 써야 한다. 그렇다고 은퇴 대비 투자금을 무작정 찾아 쓸 수도 없다. 자칫하면 순식간에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가능하면 안전한 인출 전략을 세워 투자금을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2세부터 받기 시작하고 투자금은 잘 보존해 더 큰 돈으로 불려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모아둔 은퇴 자금이 소진되게 마련이다. 소셜 연금은 은퇴 전 급여나 수입의 40% 정도만 커버해 주도록 설계돼 있다. 늦게 신청해 받는다고 해도 충분한 은퇴 자금을 소셜 연금만 가지고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별도의 은퇴 투자금을 잘 보존해 더 나이가 들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하는 것이 좋다.

### 오래 살 것 같지 않고 배우자가 죽은 남편의 소셜연금에 의존해 살지 않아도 된다면

소셜 연금을 늦게 신청해 큰돈을 받는다 고 해도 일찍 죽으면 오히려 손해다.

일반적으로 일찍 받는 금액의 총액과 늦게 받는 연금 총액이 같아지는 때를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reak even point) 라고 부르며 우리말로 '손익 분기점' 이라고 표현한다.

이 손익 분기점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78~82세다.

이 손익 분기점을 넘는 나이까지 산다면 분명 늦게 받는 것이 더 좋고 상당히 큰 금액을 더 오래 받으면서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력이나 병력이 있다면 손익 분기점 나이를 넘기기가 힘들 수 있다.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오래 살 것 같지 못한 건강 상태라면 차라리 일찍 받아 좀더 편안한 재정을 유지하며 여생을 사는 편이 낫을 지도 모른다.

또 하나 일찍 받을 때 고려해야 한 중요한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으면 부인의 은퇴 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특히 남편의 소셜 연금이 부인 것 보다 많다면 더욱 그렇다.

물론 살아있는 배우자는 둘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매달 2장씩 날아오던 소셜 연금이 한 장으로 줄어들어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를 지적해 보자. 남편이 연금을 62세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죽었다면 부인은 남편의 적게 받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70까지 기다려 많은 연금을 받다가 죽는다면 그 연금이 부인에게 지급된다. 물론 남편의 연금이 부인의 연금보다 더 많을 때의 경우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배너광고도 역시 US메트로뉴스  
신문과 인터넷으로 최대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 · 구독 (323)620-6717  
contact@usmetronews.com





## 조기 연금 받다 마음 변하면 ‘철회’ 가능

받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 해야  
그동안 받은 연금 전액 반납  
만기연령 지나면 ‘중지’, ‘철회’와는 달라

예상치 못한 생활 변화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받다가 이를 다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62세 등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다가 취소한다.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해 소득이 생긴다면 소셜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일정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고 또 수입이 많으면 소셜 연금의 일부가 과세 소득이 될 수도 있다.

2021 기준으로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근로소득이 1만8,960달러를 넘으면 2달러당 1달러씩 줄어드는 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연 2만5,000달러를 번다면 6,040달러를 초과한 것이므로 소셜 연금은 3,020달러 줄어들어 지급된다.

따라서 조기 은퇴한 후 생각이 바뀌어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오히려 연금을 취소하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받는 것이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조기 신청을 후회하고 소셜 연금을 취소한 후 만기 은퇴 연령대부터 다시 받을 수 있다. 연금 취소는 만기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연금

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와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70세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연금을 취소하면 신청해 받은 지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소셜시큐리티 국은 이를 ‘최소’ (cancel)라고 부르지 않고 ‘철회’ (withdrawal)라고 말한다. ‘철회’는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하다. 또 그동안 받은 모든 돈을 소셜시큐리티국에 돌려줘야 한다.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폼 SSA-521(form SSA-521)를 통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났지만 아직 70세가 되지 않았다면 연금 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고 ‘중단’ (suspend) 할 수 있다. 이런 때는 다시 지급 신청을 낼 때까지 매년 8%씩 연금이 늘어난다.

이번 호에서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만 소개하고 ‘중단’ 케이스는 다음에 설명하겠다.

### 조기 신청 ‘철회’를 결정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점들

▲우선 연금 신청자의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연금 신청자의 크레딧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혼한 배우자는 관계가 없다.

▲신청자가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배우자나 가족이 받았던 모든 연금을 소셜시큐리티국에 되돌려 줘야 한다.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자녀들도 될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모두

토해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나 C, D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이 돈 또한 모두 돌려줘야 한다.

▲또 IRS 세금 역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 IRS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비나 세금 등이 강제 공제됐었다면 이 금액 또한 소셜시큐리티국에 돌려줘야 한다.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도 철회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작성된 SSA-251 폼을 가까운 소셜시큐리티국에 보내면 소셜시큐리티에서 심사해 줘야 할 돈이 있다면 정산해 보낸다. 또 철회 신청을 낸 후 60일 동안 다시 철회를 반복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철회 반복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모두 ‘철회’ 할 때

소셜 연금뿐 아니라 메디케어도 모두 ‘철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동안 지급됐던 메디케어 파트 A 치료 비용 역시 모두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파트 B는 자발적 탈퇴로 간주지만 ‘철회’를 신청한 달과 다음 달까지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파트 B 프리미엄은 공백 기간 만큼 늦게 신청한 것으로 계산돼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장기간 나가서 살기 위해 간다면 미국에서의 메디케어 혜택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메디케어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요 없는 메디케어를 돈을 내면서까지 장기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를 철회한다면 메디케어 파트 C로 불리는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자격이 없어진다. 또 A와 B를 모두 철회하면 처방전 파트 D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파트 A 또는 파트 B중 한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파트 D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둘 다 철회해 파트 D 자격도 상실했다가 나중에 다시 파트 D 자격이 돼 가입한다면 공백 기간 만큼의 벌금을 평생 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섭기자

### 알립니다

## US 메트로뉴스 시카고판 8월부터 발행합니다

총 32페이지 로컬 소식도 제작  
뉴욕·시애틀·하와이 등 준비

‘시카고 K 라이프’라는 제호로 발행되는 본지 시카고 판은 매달 두번째 주 시카고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소셜 연금부터 메디케어 등 사회 복지, 은퇴, 보험, 여행, 건강 등등 US메트로뉴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 정보가 시카고 지역 한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시카고 현지 소식 4페이지와 본지 28페이지 등 총 32페이지로 제작되며 본지에 실린 기사와 광고가 멀리 시카고 한인사회까지 그대로 소개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제작되는 US메트로뉴스는 시카



고를 시작으로 뉴욕, 시애틀, 하와이 등 미 전역으로 배포되는 한인사회 최초의 종합 웰빙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 65세 전 직장 그만둔다면 오바마케어로 옮겨라



팬데믹이 끝나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팬데믹 기간 중 깎았던 급여를 ‘고용 개발국’ (EDD)에서 보충해 줘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복귀 직장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깎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어렵다. 건강보험 때문이다. 급여는 깎여도 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기’ 해야 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메디케어가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된다.

미국 시니어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는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65세부터 받는다. 따라서 좋으나 싫으나 메디케어 나이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얼마 전 지인으로 부터 들게 된 씩씩한 하소연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건강 보험 때문에 결심을 하지 못한다. 그나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그것 역시 조만간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본지 4월호 참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충분히 건강보험에 가입해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 은퇴 직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지 인사과에 문의하기

2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직장은 법적으로 은퇴자에게 계속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은퇴 전까지 건강 보험을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해주는 좋은 직장도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 후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 오바마케어에 가입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으

### 예비 은퇴 직장인 최대 고민은 건강 보험 연방 보조금 확대로 보험료 더 적을 수도 빈곤선 150%까지 보험료 '0' 로 가입 가능

로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 국민 건강보험(ACA)인 일명 ‘오바마케어’ 특별 가입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원래는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례 가입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음 가입 기간이 오픈될 때까지 보험 없이 기다려야 했다.

특히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는 코비드 구호 기금 1조9,000만 달러 재정에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 연방 보조금 확대안을 포함시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만약 직장을 퇴직했다면 8월 15일 가입 기간 연장 이외에도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특별 가입이 인정돼 오바마케어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 보험을 잃었다면 60일 이내에 각 주별 또는 연방 정부 운영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021년과 2020년 바이든 행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확대 정책에 따라 큰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보조금 확대법에 따르면 보험 거래소의 ‘실버’ 플랜 가입자의 수입이 연방 빈곤선 150% 미만이면 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조금 확대 이전에는 수입의 2.07%를 보험료로 내야 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 빈곤선 상한선의 138%까지 보험료를 전액 보조받는 메디케어(메디칼)에 가입하고 그 이상 수입부터 150%까지는 소득의 4.14%를 보험료로 냈다. 1년에 792달러 정도로 한 달 66달러다.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소득이 빈곤선 400% 이상자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매우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했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보험료가 수입의 최고 8.5%를 넘지 못하게 했다. 나머지는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바이든의 지원 확대안은 2022년까지 지속되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의회와 협의해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가입이 오히려 직장 보험보다 보험료도 더 낮고 혜택도 수입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조기 은퇴한 유모 씨(62)는 직장 보험보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에 더 만족하는 케이스다.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한 실버 보험의 보험료는 부부 600달러가량이었지만 바이든 정책으로 340달러로 내려갔다.

특히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 지불해야 했던 한 달 약값이 60~70달러였지만 오바마케어 보험으로 요즘은 한 달 10달러도 들지 않는다.

### 코브라(COBRA)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연방법으로 직장에서 받고 있던 동일한 건강 보험을 18개월간 지속할 수 있다. 이를 코브라(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라고 부른다. 이 코브라 보험은 20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더이상 보험료를 보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액 자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2% 행정부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 보험으로 병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한 구태여 비싼 코브라 보험을 유지할 필요 없이 오바마 케어 보험으로 옮겨 가입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보험은 병력을 따지지 않는다.

### 배우자 직장 보험으로 옮기기

배우자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한다면 가족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의 95%가 직원 배우자에게도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한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자넷김기자

웰빙 가이드

# US메트로뉴스

## 읽을 게 많아서 좋아요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usmetronews@gmail.com

환자를 최고로 생각하고 치료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2017·2018·2019·2020년  


---

  
**최우수 별 5개**  
**서울 메디칼 그룹**  


---

**BEST 4년 연속 선정**  
 환자 만족도 · 의료진의 진료 수준  


---



배우 이순재



**시니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의료 시스템 - 메디케어 HMO**

미주 전국 9개 지역의 4200명 의사 선생님들께서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IRA>

<50세 이상 연 7,000달러>

## 개인은퇴구조와 적립금은 연 6,000달러까지

은퇴 자금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IRA다.

IRA는 '개인 은퇴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인 401(k), 403(b) 등등과 함께 미국 시니어 라이프를 지탱해주는 대표적인 은퇴 플랜이다.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온라인이나 피델리티, 찰스 슈왓과 같은 브로커 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다.

IRA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세전 수입)과 세금을 낸 수입(세후 수입)으로 적립할 수 있다. 둘 중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는 가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세전 수입으로 적립한 IRA(전통 IRA라고 함)는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야하고 72세부터는 의무적으로 찾아 써야 한다. 반대로 세후 수입 적립한 IRA(로스 IRA라고 함)는 찾을 때 세금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아도 된다. 물론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온라인 또는 브로커를 통해 IRA에 가입하면 적립금을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 가입하면 보통 이자율이 매우 낮은 CD와 적금 구조에 투자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투자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은행에서 브로커 회사와 연동하는 경우도 있다.

▷돈이 많다고 무한정 IRA에 투자할 수는 없다. IRA 투자금은 꼭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소득으로만 가능하다. 일을 해서 번 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갑자기 생긴 돈, 이자, 렌트 수입 등으로는 적립할 수 없다. 또 연간 적립금에는 한계가 있다.

▷인출 규정도 적용 있다. 59.5세 이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물론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있다.

▷IRA는 '전통' (traditional), '로스' (Roth), SEP, SIMPLE 등 4가지로 구분한다.

### 전통 IRA(Traditional IRA)

IRA가 처음 생겼을 때의 IRA로 보면 된다. 그래서 '전통' (traditional)이라고 부른다.

전통 IRA에 적립하면 세금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전통 IRA에 6,000달러를 적립했다면 세금 보고 때 과세 수입에서 6,000달러를 제할 수 있다. 과세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세금도 덜 낸다. 그러나 은

### 직장 401(k) 있다면 적립금 세금 공제 달라져 수입 낮아져 감세 효과 높아 로스 IRA 연수입 13만9,000달러 이상 적립 못해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한 직장인이 IRA에 가입했을 때 수입(MAGI)에 따라  
적립금 세금 공제 분석** (단위: 달러)

세금보고 형태	2020 MAGI	2021 MAGI	적립금 세금 공제
독신으로 직장 은퇴 플랜 가입	65,000미만 65,000이상~75,000미만 75,000이상	66,000미만 66,000이상~76,000미만 76,000이상	전액 공제 부분 공제 공제 못 받음
부부로 직장 은퇴 플랜 가입	104,000미만 104,000이상~124,000미만 124,000이상	105,000미만 105,000이상~125,000미만 125,000이상	전액 공제 부분 공제 공제 못 받음
부부로 배우자가 직장 플랜 가입	196,000미만 196,000이상~206,000미만 206,000이상	198,000미만 198,000이상~208,000미만 208,000이상	전액 공제 부분 공제 공제 못 받음
부부 별도 세금 보고로 둘중 하나 직장 플랜 가입	10,000미만 10,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부분 공제 공제 못 받음

**수입(MAGI)에 따른 로스 IRA(Roth IRA) 적립 가능 금액 비교** (단위: 달러)

세금보고 형태	2020 MAGI	2021 MAGI	최고 적립금
독신, 가장, 부부 별도 (부부가 해당년도에 함께 살지 않았을 때)	124,000미만 124,000이상~139,000미만 139,000이상	125,000미만 125,000이상~140,000미만 140,000이상	6,000(50세 이후 7,000) 금액 감소 적립 못함
부부 공동, 또는 자격 있는 미망인	196,000미만 196,000이상~206,000미만 206,000이상	198,000미만 198,000이상~208,000미만 208,000이상	6,000(50세 이상 7,000) 금액 감소 적립 못함
부부 별도(해당년도 배우자 함께 살았을 때)	10,000미만 10,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적립금액 감소 적립 못함

퇴한 후 찾아 쓰면 일반 과세 수입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적립할 수 있는 금액도 2021년 6,000달러까지다. 나이가 50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이 적립금 모두 세금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결혼을 했고 배우자중 한명이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하고 있다면 전통 IRA 적립금은 가입자의 수입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 받지 못한다. 일정 수입이 넘으면 적립은 할 수 있지만 세금 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직장 은퇴 플랜이 없다면 수입에 관계없이 적립금 모두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적으로 59.5세 이전에 적립금을 찾

으면 찾은 금액의 10%는 벌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찾은 금액은 밀렸던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벌금이 면제되는 조항도 있다.

구조에 적립된 돈을 찾지 않고 무한정 두고 불려 나갈 수도 없다. 72세(이전에는 70.5세)부터 법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돈(RMD) 만큼 반드시 찾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야 하는 금액의 50%는 세금으로 나간다.

### 로스 IRA(Roth IRA)

로스 IRA는 이미 세금을 낸 순 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립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찾아 쓸 때는 세금이 없으며 투자로 인한 수익 역시 세

금을 내지 않는다.

또 72세 이상부터 찾아 써야 하는 RMD(최소 인출금)도 없다. 따라서 근로 소득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적립할 수 있다. 은퇴 나이가 지났어도 그해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는 로스 IRA에 적립하지 못한다.

2021년 기준으로 '수정후 조정 총수입' (MAGI)가 14만달러(독신), 20만8,000달러(부부 공동) 이상의 수입자는 적립할 수 없다.

연수입 독신 12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19만8,000달러 미만은 최고 6,000달러(50세 이상 7,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그 이상 수입자는 점차 적립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

### SEP IRA

일반적으로 SEP IRA는 종업원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에 그치는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 또는 자영업자를 위한 IRA 플랜이다. 전통 IRA와 같이 적립금은 세금 공제되고 은퇴까지 세금이 연기되며 찾아 쓸 때 일반 수입과 합쳐져 세금을 낸다.

2021년 기준으로 급여의 25% 이하 또는 5만8,000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IRA와 다르게 50세 이상이라도 추가 적립금 혜택은 없다. SEP IRA도 72세부터 매년 법으로 정한 만큼 RMD를 찾아야 한다. SEP IRA는 비즈니스 소유주가 종업들을 위해 돈을 적립해 준다면 자격이 되는 종업원 모두에게 동일한 비율로 적립해 줘야 한다. 차별 금지한다는 것이다.

### 심플 IRA(SIMPLE IRA)

'종업원을 위한 저축 독려 매치 플랜'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으로 풀이된다. 직장 은퇴 플랜 401(k)의 스몰비즈니스 버전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운영은 전통 IRA와 같다.

100명 이하의 종업원들이 있는 스몰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은퇴 플랜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되며 은퇴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돈을 불려 나갈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1만3,500달러, 50세 이상은 3,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고 여기에 고용주는 반드시 일정 금액을 종업원을 위해 적립해 줘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자녀 크레딧 지불금, 세금 주의

**세금 보고 때 환불금 줄고 돈 더 낼 수도  
전문가들 “수입 있다면 현금으로 받지 말라”  
수입 높아도 2,000달러 받을 수 있어**

7월 15일부터 연방 국세청(IRS)이 6,000만 명의 어린 자녀를 둔 3,500만 명의 가정에 6개월간 매월 자녀 양육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이를 택스 크레딧(child credit)이라고 부른다. 자녀 3명을 둔 가정이면 연말까지 매달 900달러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본지 7월호 참조).

연방 의회는 어린이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시작됐던 연 2,000달러의 자녀 양육 택스 크레딧을 올해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까지 크게 늘렸다. 이 자녀 크레딧 확대는 올해만 해당되며 연방 정부는 1,000억 달러의 경비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 감면과는 다르게 택스 크레딧은 낼 세금 1달러가 있다면 1달러를 모두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로 확대된 자녀 택스 크레딧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수입이 있는 가정에서는 2021년 세금 보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35살의 미망인 아만다 레이는 딸 아이가 6개월 때 남편을 잃었다. 레이는 올해 확대된 새 자녀 택스 크레딧이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겼다. 레이 는 시카고의 위험한 지역을 떠나 5살난 딸아이와 더 안전한 교외 지역으로 이주했다. 레이 는 팬더믹으로 식당 일을 잃어 아파트 비용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레이 는 지난 6월 일리노이 빌라팍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지금의 집주인이 확대된 택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레이 모녀의 입주를 허락한 것이다. 레이의 딸은 시카고의 수영 교실에 등록해 다음 학기 프리 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와는 달리 많은 가정들이 내년 봄 세금 시즌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IRS는 2020년 보고된 수입 또는 2019년 보고 수입을 근거로 차일드 크레딧 돈을 보내주고 있다. 그런데 올해 수입이 지난해 보다 오른 가정은 받은 크레딧 돈을 모두 또는 일부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또 크레딧 대상 가정이라도 내년 세금 보고 때 세금 환불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생길 것이다. 2021년 차일드 크레딧 절반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다이가 제공됐다. 2,000달러 택스 크레딧은 영구 혜택이므로 올해 새 확장안의 수입 한계를 넘는 가정에게 계속 제공된다.

크레딧 확대 정책에 따라 2021년 IRS는 택스 크레딧의 절반을 7월15일부터 6번에 나눠 매달 지불한다. 따라서 크레딧 대상 가정의 자녀가 6세, 10세, 14세 등 3명이 있다면 총 9,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제공되고 이중 절반인 4,500달러는 올해 말까지 현금으로 매달 나눠 받는다.

IRS는 이미 각 가정에 편지를 보내 통지하고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택스 크레딧 선지급 대상은 앞서 설명한 대로 2020년 세금 보고서(아직 안 했다면 2019년 보고서 금액)를 근거로 결정된다. 만약 2021년 수입이 달라졌다면 선지급이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이전 세금 보고서의 수입 때문에 올해 수입이 낮아졌는데도 매달 돈을 받지 못한다면 내년 세금 보고 때 택스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540달러씩 현금을 받는다. 2020년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는 다르게 2021년에는 근로 소득이 없어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택스 크레딧으로 현금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자격이 없다고 판정 난다면 돈을 돌려줘야 하나**

많은 경우 돌려줘야 한다. 2021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입이 높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지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수입이 늘었을 수도 있고 이혼한 배우자가 올해 자녀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개인 4만 달러, 부부 6만 달러 수입이상이면 IRS에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자녀 택스 크레딧 대상인데 세금 보고에 어떤 영향 미치나**

세금 보고 때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 돌려받는 환불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많은 돈이 크레딧으로 현금 지불됐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결혼 부부가 6세 이상 두 자녀를 뒀고 수입이 22만 달러였다면 2020년 500달러를 환불 받았을 것이다.

22면에 계속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이런 이유로 뉴욕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필리스 조 커비는 고객 대부분에게 차일드 크레딧 현금 지불을 받지 말라고 조언한다.

커비는 “차일드 크레딧 금액이 너무 큰 데다가 1달러당 1달러 세금 상계 형식이어서 올해 절반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택스 시즌 때 IRS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이미 100만여 가정이 현금 지불을 거부했다. 다음은 차일드 크레딧을 받을 때 알아 둬야 할 세금 문제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리한 내용이다.

**올해 지불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얼마이고 IRS는 얼마나 각 가정에 송금하나**

2021년 최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6세 미만(5세까지) 자녀 한 명당 3,600달러다. 또 6세부터 17세까지(올해 연말까지)는 1인당 3,000달러다.

올해 크레딧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1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2,000달러 택스 크레

**2021 차일드 택스 크레딧 자격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개인 세금 보고자의 조종 후 총수입(AGI)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15만달러 이상의 가정은 수입에 따라 1,600달러 또는 1,000달러로 지불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AGI 기준을 넘는 수입 1,000달러당 매 50달러씩 지불금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따라서 수입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부 AGI 20만 달러이고 6세, 10세, 14세 자녀 3명이 있다면 자녀 한 명당 3,000달러에서 2,500달러가 제해져 2021년 한해에 500달러만 받는다고 IRS는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부는 올해 한시적 확대안이 아니라 영구 크레딧 자격으로 16세 이하 자녀 1명당 2,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영구 자격으로는 부부 수입 40만 달러(개인 20만 달러)부터 택스 크레딧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부부는 2021년 전체 택스 크레딧은 6,500달러이고 연말까지

웰빙 가이드  
**US메트로뉴스**

US메트로뉴스 7월호  
주최시작 10월...  
받기 전 세금계산부터

**특별한**  
월간 프리미엄 웰빙가이드

고품격 월간 웰빙가이드 US METRO NEWS가 매월 첫째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US METRO NEWS'는 최고급 웰빙 기사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되는 월간 웰빙 가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 “매년 수입의 15%씩 은퇴 대비 저축하라”

### 소셜 연금은 은퇴전 수입의 40% 직장 연금 플랜 충실히 적립 투자처 잘 선택해 장기 은퇴 대비

은퇴를 하려면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축금이 있어야 하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외의 고정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은퇴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아둬야 불필요한 벌금이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미국인 은퇴자의 40%가량이 소셜 연금에만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셜 연금은 은퇴전 수입의 40%까지만 보장해 주도록 설계돼 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실제 미국인들의 6.9%만이 소셜 연금과 은퇴 저축 플랜, 연금 등 3가지 수입을 통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은퇴 대비가 미약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직장내 은퇴 저축 플랜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금액을 저축한다. 또 세금을 열심히 내고 정부 소셜 연금을 최대한 받는다. 피델리티 투자사의 메간 머피 부사장은 매년 수입의 15%는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에 적립하라고 조언했다. 아직 나이가 젊고 돈 쓸 곳이 많다면 우선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 매년 조금씩 저축금을 늘려가는 방법도 좋다.

빠듯한 봉급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저축이 그리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한달 커피값만 절약해도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에 200~300달러는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머피 부사장은 “봉급을 받을 때마다 1% 올려도 30~40달러를 더 저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401(k) 매칭 펀드를 최대한 받아라

직장 은퇴 플랜인 401(k)에 회사가 매칭 펀드를 제공한다면 가능하면 최대 펀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매칭 펀드란 종업원이 적립하는 돈의 일정 비율을 회사에서 추가로 적립해 주는 돈을 말한다.

뉴욕 아카데미 웰스 매니저먼트사의 엘리슨 바나스키 공인 재정 플래너는 “1달러 당 50센트씩 봉급의 최대 6%까지 매칭해준다면 6%를 적립하라”고 조언했다. 적



립하는 금액의 50%를 회사에서 추가로 적립해 주므로 봉급 인상 효과도 볼 수 있다.

### 은퇴 플랜의 절세 효과를 이용한다

전통 401(k)에 적립하는 돈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돈은 소득에서 제외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은퇴 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면 된다. 2021년 전통 401(k)에 1만9,500달러까지 세전 수입으로 적립할 수 있다. 50세가 넘으면 2만 6,000달러로 늘어난다.

수입이 적은 직장인이 은퇴 플랜에 저축하면 저축금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크레딧으로 돌려준다. 이를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이라고 부른다. 저축도 하고 저축한

돈은 크레딧으로 정부가 돌려주는 이중 효과를 보게 되므로 저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IRA 개설하기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다녀도 은퇴 저축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 은퇴 계좌(IRA)를 개설한다. IRA는 직장 401(k)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A 역시 세전 수입 또는 세후 수입 적립에 따라 전통과 로스로 나뉜다. 두 플랜 모두 2021년 연간 최대 적립금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다. 또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401(k)를 개인 IRA로 롤오버시킬 수 있다.

### 투자처를 잘 선택한다

은퇴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면 투자처를 잘 선택해야 한다. 은행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를 잃는 역효과를 낸다. 그렇다고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나이를 고려해 관리비가 적게 드는 주식과 채권을 적당히 섞어 투자하는 것이 좋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에 가까울수록 가격 변동이 심한 주식을 줄이고 안정된 채권 투자를 늘리라고 조언한다.

### 은퇴 구좌 수수료에 주의한다

은퇴 구좌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가 높으면 투자 수익을 크게 깎아먹을 수 있다. 1%라고 해도 30년 이상 누적되면 수만달러가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직장 401(k)의 수수료는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투자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아보고 투자처를 선택해야 한다.

### 소셜 연금을 최대한 받는다

소셜 연금은 평생 받는 최고의 베니핏이다. 금액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올라간다. 하지만 조기 신청하면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는다. 62세와 70세 수령 금액의 편차는 50% 이상이다. 특히 결혼 부부는 신청 시기를 잘 조절해서 최대 금액을 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 메디케어 제때 신청한다

메디케어는 65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가입은 65세 생일을 맞는 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직장 건강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이 끊어지면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 상속 계획을 세운다

상속 계획은 돈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 달라는 의료 의향서도 상속 계획에 포함된다. 또 은퇴 연금 플랜 등의 수혜자도 정해 놓고 수시로 업데이트 해준다.

존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 비트 코인·암호 화폐, 투자 포트폴리오 1% 적정

미래를 대비한 은퇴 플랜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포함시켜도 될까? 많은 한인들의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이서리움(ethereum), 도지코인 등 비트코인에 편승한 암호 화폐가 팬더믹을 타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폭풍처럼 밀려왔다. 2021년 암호화폐만도 4,000개가 넘는다. 전년의 5,392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숫자다.

요즘은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순식간에 백만장자의 꿈을 꾸는 투자자들의 매력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암호화폐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냐는 질문을 던져보자.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에 견딜 수 있는지, 또 재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재정 전문가 대부분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1%~2%가 적정하다고 강조한다.

‘재정 플래너 협회’를 포함해 다수의 재정 회사들이 500명의 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고객들로부터 암호 화폐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보다 17%가 증가했다. 이 중 14%는 투자를 추천했다. 전년에는 1%도 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암호화폐에 발을 담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문답 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냈다.

##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하나

암호화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암호 화폐의 ‘두목’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9,000달러 선을 출발해 올 4월 6만4,000달러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3만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포트폴리오 전략부리를 이끄는 로저 알리가-디아즈는 “투자처 밸런스 유지나 심사숙고와는 거리가 먼 위험성 높은 투기성 투자”라고 단정했다. 그는 최근의 한 기사에서 “암호 화폐는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으며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최고점을 찍다가 중국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반 토막으로 곤두박질쳤다.

예일 대학의 이코노미스트 알리 시빈스키는 2018년 공동 저서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목록에 암호 화폐를 1~5% 할

자산·지식 풍부하고 가격 변동 견딜 수 있다면 OK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에 포함된 ETF 투자 권고  
로스 IRA에서 투자하면 수익 많아도 면세 혜택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플랫폼 통해 구입 가능



당하라고 조언했다.

또 금이나 비공개기업 펀드인 사모펀드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대안 상품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좋다고 아울러 조언했다. 그는 “금 등 대안상품에 5% 투자했다면 10% 암호화폐 투자도 못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상 화폐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타 전통 투자 방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투자기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떨어질 때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의 다양성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좋은 투자”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뱅가드의 알리가-디아즈와는 다른 의견이다. 그는 주식과 채권에 실질적 경제 가치가 부족하고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자 수익 또는 배당금 같은 현금 유동이 없는 무언가를 포함시키는 행위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일리노이 크리스탈 레이크 거주자 존 제

정 어드바이저 존 피어셀은 고객들에게 암호 화폐 직접 투자보다는, 암호화폐 채굴 블록 체인 기술과 관련된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최고 2%까지 투자해 보라고 조언했다.

## 얼마까지 투자해야 하나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우선 소액부터 시작해 목표 할당치에 도달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전략을 세워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1% 이상 투자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시장 가치는 국제 주식 및 채권 가치의 0.5%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에델만 파이낸셜 자문사의 릭 에델만은 “암호화폐에 관한 지식이 많고 공격적이 라면 1%를 넘어도 좋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1%면 충분하

다”고 조언했다.

## 어떻게 사나

‘코인베이스 글로벌’ (Coinbase Global Inc.)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로빈후드 마켓’ (Robinhood Market Inc.)과 같은 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고팔 수 있다.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100달러를 살 때 3.49달러를 수수료로 내고 데빗 카드와 같은 결제 방법을 사용하면 더 낼 수도 있다.

반면 ‘로빈후드’는 커미션이 없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주문을 모아 거래해주는 회사들이 수수료를 받음으로 최고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피델리티 투자사’ ‘찰스 슈왓사’ 등 많은 대형 거래 브로커 회사들은 가상 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Grayscale Investments LLC)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트러스트(TRUST)의 지분에는 투자할 수 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연간 2% 수수료를 받는다. 또 ‘코인베이스’ 등 회사들의 주식을 사거나 디지털 자산 회사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 IRA에서도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한가

슈왓이나 피델리티는 IRA 소유주들의 암호 화폐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원한다면 대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IRA 구좌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IRA는 수수료가 세다. 주의할 점은 연방 및 주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IRA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IRA 전문가 에드 슬롯은 “로스 IRA가 잠정적 큰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로스 IRA는 세금을 낸 순수입으로 적립하므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로스 IRA는 소유주의 나이가 59.5세 이상이고 개설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전통 IRA보다는 과세 구좌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슬롯 전문가는 밝혔다.

일반 구좌로 1년 이상 투자했다가 팔면 수익에 대해 장기 자본 이득세 23.8%를 내야 하므로 수익을 크게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전통 IRA는 찾는 금액에 대해 최고 37%까지의 소득세(소유주의 그해 수입에 따라 결정)를 낼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가'

## 폴선 메디케어



**폴선**

CA Lic.#OF44756

**자넷(영희) 전**

CA Lic.#OH49868

폴선이 지난 10여 년간 엘에이,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 등에 거주하시는 약 3,700명 시니어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으로(더 많은 분들을 도와 드리고자)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모든 메디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Google에서 **폴선 보험** 을 검색하세요.

[www.paulsunmedicare.com](http://www.paulsunmedicare.com)

- 처음에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이나,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 파트 B 보험료를 환불 받으시겠습니까?**
- 직장 보험에서 나오신 분, 거주지가 바뀐 분, 적합한 플랜을 받으시겠습니까?
- 당뇨, 고혈압 질환을 위한 SNP 플랜(특별 프로그램)
-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 더 많은 혜택 플랜
- 치과 치료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 한방 침술을 무제한으로 받으시겠습니까?
-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비 보조를 받으시겠습니까?

※중앙일보 메디케어 건강보험 칼럼니스트

### 확장이전

함께 일하실 에이전트 모십니다

**폴선보험 (213)503-6897 / (323)767-6872**

올림픽&알바라도 (구)월서은행 5층 510호  
2140 W. Olympic Blvd. #510, LA, CA 90006

폴선 시니어 건강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www.seoulmedicalgroup.com](http://www.seoulmedicalgroup.com)



# 메디케어 가입자 15%, 치아 모두 상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안경과 보청기, 치과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주치의 제도인 파트 C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7월 14일 파트 C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안경 등 3가지 혜택을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도 포함시키는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3조 5,000달러에 달하는 광대한 예산안에는 유급 가족 병가, 차이드 크레딧 확대, 프리스쿨 무상 지원, 2년제 대학 무료, 저렴한 주택 지원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이 예산안에는 일부 불체자의 영주권 부여안도 포함돼 있어 현재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통과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메디케어의 혜택 확대에는 적지 않은 중도 의원들이 다소간 호응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파트 A(병원)와 파트 B(의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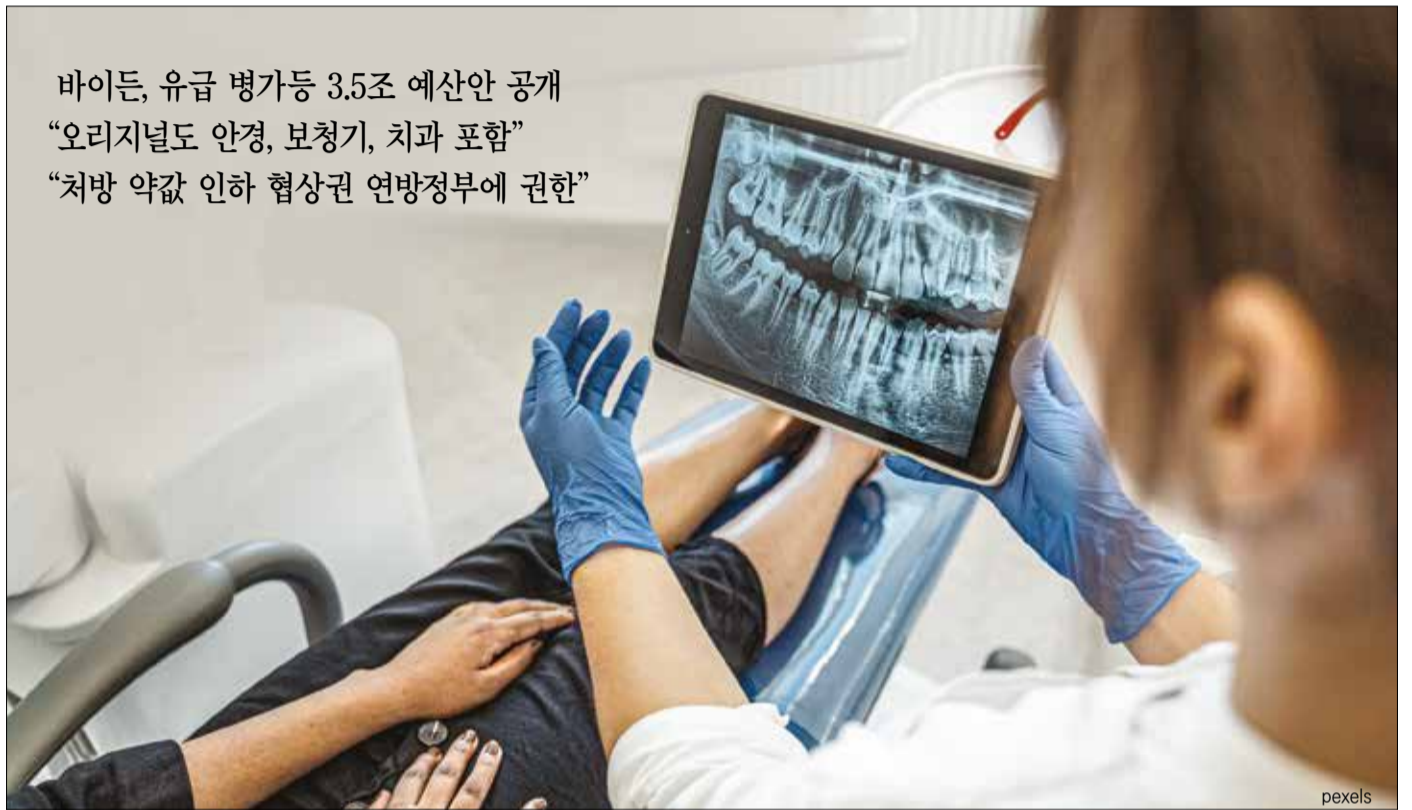
여기에 일반 건강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처방전 플랜인 파트 D까지 포함해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골격을 이룬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통(traditional) 메디케어라고도 부른다. 이 메디케어는 주치의가 필요 없으며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진료비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 문제로 연방정부는 개인 보험회사에 의뢰해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파트 B)를 모두 커버해주고 또 처방전 파트 D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저렴한 비용의 파트 C, 즉 어드밴티지 플랜을 만들었다. 이 파트 C는 주치의 제도로 거주지 내 네트워크 의료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다. LA등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0'이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은 안경, 보청기, 치과, 침술, 운동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준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주치의 제도인 파트 C에 가입해 다양한 추가 혜택을 즐기고 있다.

### 처방전 약값 인하 가능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처방전 약값 가격 인하를 협상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인 척 슈미츠 상원의원은 "이 플랜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갈 길이 아직은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평균 미국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이 플랜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척 슈미츠 상원의원이 지난 수년동안 주장해 오던 메디케어 연령 확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메디케어 자격을 현재 65세에서 60세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해 왔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2/3가 이 방안에 찬성했고 공화당 성향도 절반이 지지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바이든 행정부 팀도 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잠시 메디케어 확대안을 보유하고 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처음 6조달러의 예산을 지지했다가 3조5,000달러 조정안에 찬성하면서 "미국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결점들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된 '오리지널' 또는 '전통' 메디케어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가 룬팅케어, 즉 장기 간병과 처방전 약 플랜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는 이들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 또 안경과 치과, 보청기 역시 커버되지 않는다. 치아에 문제가 생겨도 신경치료는 물론 평소 치아 관리를 위한 스케일링도 오

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 받지 못한다. 이런 비용을 모두 자신이 내야 하는데 저축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2019년 보고서는 메디케어 수혜자 2/3는 치과 보험이 없으며 절반은 1년에 치과를 한번도 찾은 적이 없다. 또 7명중 1명은 이미 치아를 모두 잃었다. 매우 심각한 통계 자료다.

### 전망

미국인들 상당수가 메디케어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치과 혜택에 매우 긍정적이다. 최근 '유고' (YouGo) 설문에 따르면 3/4이 이 방안을 지지했고 2022년 상원 선거 때 격렬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주의 주민 82%가 찬성했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정가는 반으로 나뉘어 있다. 상원 절반을 장악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확대안은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고 메디케어 기금이 크게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예산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단순한 다수결 표결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은 상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 맨신(웨스트버지니아)와 같은 중도 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맨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치과는 매우 중요한 개인 건강의 일부이지만 모두 정부가 지불해야만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세부조항은 세워지지 않았고 확대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도 모른다.

또 가입자가 이들 서비스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다. 현재 파트 B에 가입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월148.5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 65세의 큰 선물!!



#OG15778

**메디케어 신청, 모든플랜 선택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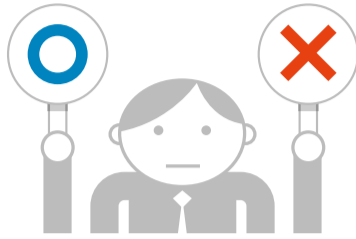
**이정인** (Jessica J. Kim)  
**(213)503-1810**  
foxrainlady@gmail.com

**무료 상담**

메디케어, 오리지널 Supplement, POP(약보험) 메디칼, Extra Help(보조)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플랜

# 젊은 세대 부채 늘려 주택 구입 관철을까

이자율 낮고 에퀴티  
빠르게 늘어 구입 적기



학자금 등 부채 많아  
가격 하락하면 큰 손실

## 월스트리트 전문가 진단

요즘 모기지 이자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020년 기준 주택 판매가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더니 올해 들어서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주택 시장 열풍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 공급은 그다지 원활치 않다는 점이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주택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어들은 패닉 바이에 나서야 하고 종종 말도 되지 않는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미국 주택 가격은 최근 통계인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12.2% 치솟아 1991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연방 주택재정청이 밝혔다.

이 같은 과열 시장에서 첫 주택 구입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적기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자율이 낮아 무리하게 모기지를 받아 비싼 가격의 주택을 구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문제를 놓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수잔 와처 부동산 재정학과 교수와 '도시 연구소'의 주택재정정책센터 설립자인 로리 굿맨 주택재정정책 부사장을 초대해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존김기자contact@usmetronews.com



## '도시연구소' 로리 굿맨 부사장 "주택을 구입하라"

젊은 세대들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이자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이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자율은 과거 50년 동안 비교하면 단 8개월간 지금보다도 더 낮은 이자율을 기록했다. 이 8개월 모두 이번 팬데믹 기간에 발생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지만 주택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반면 이자율은 올라갈 것이다.

주택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은 30년 모기지 페이먼트를 선호한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페이먼트는 변하지 않는다.

요즘 건물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렌트 가격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리스 연장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계속 렌트를 살게 되면 렌트비는 팍팍한 주택 공급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더 늘려 부담스럽다고 해도 그들의 수입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특히 주택 구입은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많은 젊은 세대들은 10여 년 전 부동산 버블 때 그들의 부모 세대들의 재정적 위



기를 목격했다. '도시 연구소'가 '블랙 나이트' 사의 모기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주택 시장은 고점을 찍은 후 2012년까지 25% 폭락했다. 하지만 2012년 최저점에서 다시 73% 급상승해 이전 최고점보다 29%나 더 높았다.

▶주택 가격 상승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 가격 상승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제한돼 있고 신규 주택 건설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승이 둔화된다고 해도 바이어들은 투자 수입 대비 수익이 아직은 높을 수 있다.

평균 신규 모기지 대출자들은 주택 가치의 약 5%를 다운페이먼트하고 나머지는 대출받는다. 만약 20만 달러 주택을 5%(1만 달러) 다운했고 주택은 연간 3%씩 상승한다면 5년 후 주택 가치는 23만1,854달러다.

이 대출자는 1만 달러 투자로 수익은 316% 보게 된 셈이다. 주식 투자를 해도

이 정도는 올리지 못한다. 젊은 세대들이 일찍 주택 구입을 한다면 이런 레버리지 투자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부채 낮추기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 버블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주택 붕괴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기지 부채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타 부채 역시 2007~2009년 불경기 때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재정 위기가 닥친다면 감원 바람이 불 것이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집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을 잃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불경기를 보면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을 잃어도 손해를 보지 않고 팔 수 있고 값이 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결국 주택 구입을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로 봐야 한다. 이자율이 계속 이런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일찍 구입해 에퀴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좋다.



## 수잔 와처 와튼스쿨 교수

## "지금은 구입 적기가 아니다"

주택 소유는 부를 축적하는 자산이며 렌트비 상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요즘 같은 저리 시대에 30년 고정 이자율은 매우 안전한 상품이다. 또 주택 시장 가치는 2006 최고점 이후 12% 올랐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을 가상해 젊은 바이어들을 부담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할 위험성도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  
저금리에다가 재택근무 환경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상승한 주택 가치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이자율이나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지금은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가 공급이 매우 낮고 건축 비용이 비싸 셸러 마켓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셸러 마켓은 순식간에 바이어 마켓으로 바뀔 수 있다.

10년 전 경험으로 볼 때 주택 가격은 매우 빠르게 곤두박질칠 수 있다. 가격 상승 압력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온다. 하지만 기대가 바뀌면 가격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코어로직' 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07~2009년 불경기 때 800만 명의 주택 소유주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주택을 빼앗겼다.

19면에 계속

# “구강 관리 소홀하면 치매 등 인지 장애 올 수도”

아기처럼 성인도 치아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아기와는 달리 나이 들어 이가 빠지면 건강, 특히 뇌 건강 쇠약의 전조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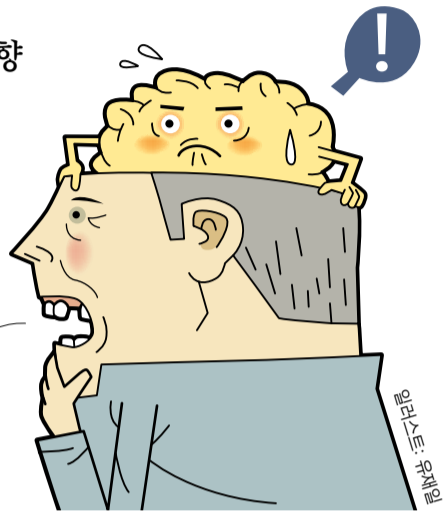
최근 치아 상실과 인지 장애가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다.

뉴욕 대학의 연구진이 ‘급성 장기요양 의학회지’ 7월호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치아를 더 많이 잃을수록 인지 능력 감소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지 기능 감소를 보이는 4,600여 명에게서 치아가 없을수록 인지 장애 위험이 48% 증가했고 치매 위험은 28%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고서는 또 치아가 한 개 빠질 때마다 인지 장애 위험은 1.4%, 치매 위험은 1.1%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틀니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평소 치아 건강을 지키고 제때 치료를 받으면 인지 저하를 막을 수도 있다고 연구 보고서

치아 잃을수록 치매 위험 증가  
치주염 박테리아 인지 저하 영향  
정기 점검으로 구강 청결 유지

치아 한 개 빠질 때 위험 상승률  
(단위: %)



는 아울러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뉴욕대 로리 메이어스 간호대학의 베이 우 국제 건강 학장은 매년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환자 진단을 받고 있다면서 구강 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쁜 구강 건강과 인지능력 감소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

했다.

치아를 잃으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이유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나이 들어 치아가 빠지는 현상은 교육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일반적임을 발견했다. 이들은 구강 청결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너무 바빠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구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고 치석이 생겨 잇몸병을 유발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치아가 빠지면 씹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영양 공급이 부족해 뇌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잇몸 질환은 나이 든 성인들의 치아 상실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며 40대 이상 치아 상실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성인 30%의 만성 염증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잇몸병 치료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박테리아로 인해 장기적으로 잇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실시된 한 연구 보고서는 치주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알츠하이머와 기타 치매로의 발전과 관련 있음을 지적했다. 박테리아와 염증 분자들이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하고 결국 인지 저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국(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1/4은 치아가 8개 미만이다. 또 9명당 1명은 모든 치아를 잃었다.

## 강산이 변해도 JAY PARK은 변함이 없습니다

메이저보험회사와 비교한 저렴한 플랜

LA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개인 / 상업용)  
사고 잦은 운전자, 음주운전 위반자, 초기 이민자, 초보운전자  
패밀리 멀티플랜 완비(2인 이상) 사고 시 신속 처리

OBAMA CARE(오바마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365일 건강보험 전문보험 Agency를 찾고 계신가요?

Workers Comp(가장 부담 적은 보험료의 종업원 상해보험)  
고객도 좋고, 매상도 떨어지는 불경기에 가장 경제적이고 저렴한  
종업원 상해보험을 알려드립니다.

35년 보험전문인 JAY PARK이 자신 있게 소개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개인, 그룹)/사업체 자동차 보험

“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월서 JAY PARK 종합보험의 LOW 를 만나세요  
”



CA ins. Lic.#0C84280  
월서 JAY PARK 종합보험  
WILSHIRE JAY PARK INSURANCE AGENCY, INC.  
2975 Wilshire Blvd., #608, Los Angeles, CA 90010

월서 JAY PARK 저가(가장싼) 보험의 LOW 보험 TEAM

213.380.9801

월서 JAY PARK 종합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www.seoulmedicalgroup.com







# 델타 변종은 수두보다 강한 ‘수퍼 전염력’

**감염자 코와 목에 1천 배 더 많은 바이러스  
두통, 목 통증, 콧물이 일반적 증상  
백신 맞았어도 돌파 감염, 타인 감염 가능**

델타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새로운 우세 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염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델타 변종의 수퍼 전염력에 우려했다.

CDC는 내부 회의를 통해 델타 변종이 수두(치킨팍스)와 유사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각 언론사가 입수해 보도한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맞으면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현저히 줄여 주기는 하지만 접종을 받아도 델타 변종에 감염되고 타인에게 전염도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CDC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지난 5월 가이드를 바꿔 바이러스 창궐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가을 학기 학교 내 마스크 착용도 아울러 권고했다.

### 델타 변종이 우려되는 이유는

‘B.1.617.2’ 로 알려진 델타 변종은 원래 바이러스와 영국의 알파 변종보다도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하다. 원래 바이러스의 2배다. 델타에 감염된 사람은 콧속에 1,000배 이상 더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 델타 변종은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생긴 면역 시스템이 항

체를 부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는 증거도 있다. CDC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 어디서 확산하나

인도, 영국 등 182개국에서 우세 종으로 보고됐다. 지난 한 달 사이 두 배가 늘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발견된 이후 4월 감염 케이스의 0.1%에 불과했지만 6월 초 9.5%에서 지금은 82.2%로 치솟았다.

### 비교되는 별다른 증상이 있나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된 영국의 경우를 보면 델타 증상은 두통과 목 통증, 콧물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며 고열과 기침, 후각 상실도 일부 나타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 백신을 맞았다. 걱정해야 하나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다만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종의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델타는 다른 변종보다 훨씬 더 돌파 감염률(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의 감염)이 높다. 하지만 감염 증상은 경미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CDC는 중증 감염을 90% 이상 막는다고 밝혔다.

### 백신을 맞았다. 감염시킬 수 있나



그렇다. 백신을 맞으면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 위험은 적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비 접종자와 동일하게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목과 코에 번식한다. 비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CDC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반스테이블 카운티의 여름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단 감염된 사람 469명 중 74%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 거의 대부분 델타 감염이었다. 비 접종자와 같은 양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 지난해 팬데믹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나.

7월 말 현재 하루 1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

이 감염되고 있다. 한 달 전 1만 건에 비해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아직 지난 겨울 수준이며 백신 접종자가 더 늘어나면 바이러스 전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예방하려면

백신을 맞는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주변에 적극 권한다.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도 중요하다. CDC는 백신 접종자도 바이러스 창궐 지역의 공공 실내 장소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 면역체계가 낮거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과 산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 N95는 CDC 승인 제품, KN95는 비승인

**NIOSH 제품 승인 여부 확인 바람직  
메디컬 마스크는 호흡기 비말 분사 차단용**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접종자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잊고 지냈던 마스크에 대한 효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95와 KN95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N95/KN95 마스크와 메디컬 또는 천 마스크의 차이

N95와 KN95 마스크는 천 또는 1회용 메디컬 마스크보다 더 밀착력이 높다. 천이

나 메디컬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키려면 매듭을 지어 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N95 이런 과정 없이도 밀봉이 가능하다.

N95와 일부 KN95 제품은 일종의 방독면으로 호흡할 때 크고 작은 입자를 걸러내 준다. 반면 천 마스크는 주로 착용자가 호흡할 때 발생시키는 비말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몇 겹인가로도 구분할 수 있다. N95와 약간의 KN95 마스크는 5겹으로 되어 있다. 반면 메디컬은 3겹이다. 일부

천 마스크는 보통 1겹이다.

### KN95? N95?

이름도 비슷해 소비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N95 마스크는 얼굴을 많이 덮는다. 편안하게 얼굴을 덮으며 공기 전염물질을 걸러주는 데 특히 효과가 있다. 매우 작은 입자도 최소 95% 여과한다.

KN95 마스크는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으로는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KN95 마스크는 일회용 수술 마스크 또는 천보다 훨씬 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크다.

### NIOSH 승인 마스크란 무엇인가. 구입한 것이 승인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전국 직업안전건강 연구소’(NIOSH)는 2018년부터 연방 식품의약품(FDA)

과 공조해 N95 마스크 승인해 준다. 하지만 KN95 마스크는 이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승인받은 마스크 제조회사는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NIOSH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도 꼭 승인된 제품인지 FDA 리스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NIOSH-approved N95’ 명단은 [https://www.cdc.gov/niosh/npptl/topics/respirators/disp\\_part/N95list1-b.html](https://www.cdc.gov/niosh/npptl/topics/respirators/disp_part/N95list1-b.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95 마스크가 아직 부족한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진 이외에는 N95 마스크를 구입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이후 많은 소매점들이 의료진 이외에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공급된다.

(9,000달러까지)

# 코로나 19로 사망했다면 장례비 받는다

FEMA, 지금까지 6만7,000명에 4억5,000만 달러 지급  
2019년 기준 미국 장례비 중간가 7,640달러로 비싸  
사망증명서에 코로나 원인 적시돼야 가능  
초기 팬데믹 사망자는 의사, 검사관 서류로도 대체

코로나 19로 사망했다면 FEMA 도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코로나 19로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유가족이 연방정부로부터 장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연방재해관리청(FEMA)은 혜택 자격을 더욱 확대해 피해자 유족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FEMA는 장례 비용으로 9,000달러까지 지원해 준다.

FEMA는 지난 4월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해 7월 현재 10만7,000여 신청자에게 7억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죽은 미국인들은 60여만 명에 달한다.

FEMA는 특히 사망 증명서에 원인이 코로나 19로 명시돼 있지 못했던 지난해 팬데믹 초기 사망자에게도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든 신청자들은 사망 원인이 코로나 19라고 적힌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 초기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 19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했고 검사 역시 제한돼 있어 사망 원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상 언급되지는 않았다. FEMA는 장례 비용을 신청하는 가족들에게 수정된 사망 증명서를 요구했으나 증명하기도 어려웠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규정 변경에 따라 2020년 1월 20일~2020년 5월 16일 코로나 19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코로나 19가 명시돼 있지 않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임을 증명해 주는 검사관 또는 인증 의료진의 편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폴리티코'는 연방 질병통제센터(CDC), 초기 팬데믹 피해가 심했던 뉴욕 지역구 척 슈머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 하원의원과 회의를 마친 후 FEMA가 자격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16일 이후 사망자의 유족들은 코로나로 사망했음이 명기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 의회는 올 3월 긴급 구조 예산에 장례 비용으로 20억 달러를 책정해 두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현재 없다.

장례 비용은 매우 비싸다.

미국 장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자료인 2019년 미국 장례 중간 가격은 7,640달러다. 여기에는 관, 입관식, 하관식 및 매장 비용이 포함된다. 2021년 통계는 이달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요즘 대세인 화장 비용은 낮은 편이다. 입관이나 염 없이 화장하는 비용의 중간가는 2019년 2,395달러였다.

다음은 FEMA 지원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FEMA 장례비를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을 원하면 (844) 684-6333으로 전화해야 한다.

FEMA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은 사망자의 이름, 장례식 날짜, 경비 지출 내역을 알려줘야 한다. 지출 내역 등 서류는 FEMA 지정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 업로드시키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많은 장의사들이 유가족들에게 연방 지원금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장의사들이 직접 신청해 주지는 않지만 경비 지출 내역서와 사망 증명서는 제공한다고 전국 장의사협회의 랜디 앤더슨 회장은 밝혔다.

##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나

망자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최대 2명까지의 여행 경비, 관 또는 화장 유골 단지, 운구 비용, 장지, 비석, 집례 등 장례식 준비, 화장 및 매장 비용 등이다.

## 장례 절차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연방거래위원회(FTC), 비영리 '장례소비자연맹'(Funeral Consumers Alliance), 전국 장의사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주 정부 관할 부서에서도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 절차와 관련 서비스에 관련된 소비자 권리 등의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고 이들 소비자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장례소비자연맹'과 '미국소비자연맹'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7개 주만이 장의사 쇼핑, 불만 고발,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기록 등에 관한 가이드를 포함한 온라인 정보를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33개 주는 미약하거나 아예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리건과 애리조나 주 장례위원회는 특히 유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매우 잘 보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캔자스, 미네소타, 뉴욕, 버지니아 역시 A등급을 받았고 네바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주는 B등급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그룹들은 장례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누군가를 잃은 시기에 매우 비싼 서비스를 쇼핑하지만 종종 그들의 권리를 알지 못한다며 미약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 정부가 많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발표된 이들 그룹의 설문 조사는 미국인 25%만이 장의사는 전화 문의 때 가격을 제공해야 하고 방문할 때는 세부 가격 목록을 인쇄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소비자 그룹들은 장의사는 가격 리스트를 인터넷 온라인에 게시해 소비자들끼리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FTC는 현재 장의사의 온라인 가격 공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법제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장의 법은 1984년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FTC는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자넷킴 기자 janet@usmetronews.com





# 흑설탕과 이스트로 간단한 모기 트랩 만들기

야외활동 많아 물리지 않게 조심  
삼나무 껍질·바실, 모기가 싫어해

여름철 모기는 여러 가지 골치거리다. 가려움증은 물론이고 웨스트 나일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옮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야외 활동이 활발한 요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충 방제 스프레이, 긴 소매 옷, 일몰 일출 시간 때 외출 삼가 등 다양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모기는 암컷이 사람을 문다. 수컷은 수액을 먹고 살지만 암컷은 산란을 위해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고 알

부민 성분을 추출해 알을 만든다.

캐나다 날씨 안내 웹사이트 '웨더 넷 워' 이 야외활동시 간단한 모기 잡는 장치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준비물

2 리터 플라스틱 물병(큰 사이즈 콜라병),

테이프, 가위, 흑설탕 50그램, 이스트 조금, 물 200ml.

◇만들기

1. 물병은 반으로 자른다.
2. 흑설탕과 물, 이스트를 섞어 넣는다.
3. 모기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스트는 설탕과 만나 이산화 탄소를 내뿜게 되는데 모기는 동물이 내뿜는 이산화 탄소를 잘 알고 달라붙는다. 이 정도로도 안심이 안 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삼나무(사다, cedar) 껍질은 모기가 싫어한다. 주변에 삼나무 껍질을 뿌려 둔다. 잔디를 바짝 깎아 준다. 나무 수액이 없으면 모기도 준다. 향료로 사용되는 바실(basil)은 훌륭한 천연 모기 퇴치제다.

물론 이외에도 물웅덩이 제거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선풍기도 좋은 방제기구다. 모기는 매우 약해 선풍기 바람이 불어도 호흡을 하지 못한다.

## 주택 구입 관창을까 14면에서 계속

▶부채 버블 조심해야

재정적 불경기의 가격 버블 현상은 부채 버블부터 시작된다. 새 주택 구입자들이 수입 능력을 뛰어넘는 대출을 받으면 부채 버블이 생긴다. 학자금 대출금 같은 기타 부채가 있는 젊은 바이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과 같은 재정 자산을 투자할 때 소

유주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모기지를 무리하게 받아도 초저리 시대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젊은 바이어들은 앞으로 수입도 올라 모기지 다운페이먼트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불경기가 오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이럴 경우 모기지도 갚기 어려운 데다가 그동안 쌓여 있던 에퀴티도 날아간다. 결국 급히 팔려는 주택이 많이 나올 것이고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시켜 에퀴티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은 많은 투자상품들의 수익을 훨씬 뛰어넘었다. 또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주들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거나 젊은 세대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싼 주택을 구입한다면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안정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한솔 노후 연금 적립 플랜”

은행 CD나 일반 Money Market 저축보다 월등한 Equity Indexed Life와 Indexed Annuity를 소개합니다.

- ✓ Indexed 생명보험으로의 Income, Accumulation, Withdrawal 등에 대한 Tax-free 혜택
- ✓ 높은 Indexed Rates + 각종 Bonus 제공
- ✓ 더 높은 은퇴연금 수익을 위해 Social Security + Indexed Annuity + Indexed Life 등의 종합인컴플랜 혜택
- ✓ 종합 주가지수 하락 시에도 적립금 유지되고 상승시에는 Max cap까지의 적립금 상승의 2중 혜택
- ✓ 100세 건강장수를 위한 장기 간호케어(Long Term Care) 10년후 적립금 원금 보장이나 적립금의 300% 혜택 (예: \$100,000 적립 시 \$300,000 혜택)
- ✓ 생명 보험금 + 은퇴 연금 + Living Benefits (Chronic 질병/ Critical 질병/ Terminal 질병 등)

## 취급상품

- 사망보험금 보장
- Indexed Rates의 은퇴 저축
- 생전 혜택 보장(Living Benefits)

- 개인연금(IRA)
- 회사 연금(SEP IRA & 401K)
- Rollover & Tax 유예

- LTC 플랜(300% 혜택이나 원금 보장)
- 평생 Income
- 뭉돈 저축(Indexed)



윌리엄 황  
CA License#0E52100

Hansol Since 1977 생명/은퇴연금/Medicare/LTC  
한솔종합보험(주)

대표전화 (213) 487-4900 | (800) 300-0703

LA주소 3598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04 | OC주소 6301 Beach Blvd Suite 304, Buena Park CA 90621

# 폭염의 여름, 외부 운동은 아침 10시 전에

땀은 몸의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상 증상 있으면 운동 중단하고 그늘서 열 식혀야  
운동 20분 전 찬 물 마시고 운동 후 더운물 샤워 도움

미 서부가 연일 폭염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곳에 머무는 열돔 현상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 한낮 외부 외출이 겁날 정도다.

고온이 지속된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슬기로운 운동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자.

올 여름은 유난히 뜨겁다. 이미 지난 6월 기온은 미국 기록을 갱신했다. 6월 북미 서부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열돔 현상이 여세를 몰아 캐나다, 워싱턴, 오리건을 거쳐 7월부터 캘리포니아까지 폭염을 선사하고 있다.

## 너무 뜨거운 날씨,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열이 발생된다. 열에 데워진 혈액이 몸의 중심(심장)에서 피부로 이동하고 땀에 의해 방출된다. 그런데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체내 온도 조절 기능이 흔들리게 되고 체온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피부로 빠르게 보내야 하는 중노동을 해야 하고 땀으로 많은 양의 수분이 빠져나간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 운동을 하거나 외부 운동을 해도 전략적으로 스케줄을 잘 짜야 한다.

우선 아침에 운동한다. 런던 브루넬 대학의 운동과학과 교수인 올리버 김슨은 특히 도시 거주자는 “항상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지역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다. 하루종일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면 엄청난 양의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오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열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그는 그늘이 없는 인도 역시 공원이나 나뭇잎이 쌓인 길보다 훨씬 더 뜨겁다고 설명했다. 걷기도 위험할 수 있다.

## 적응 한계를 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천천히 다량의 땀을 방출하며 뜨거운 날씨에 적응해야 한다. 이 과정을 운동학 적으로 ‘적응 단계’라고 표현한다.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더운 날씨에 외부 운동을 한다면 체내 적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몸에서 발



pixabay

생하는 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몸 스스로는 알고 있다. 일단 몸이 적응하면 훨씬 빠르게 또 많은 땀을 흘리게 되고 내부 열을 뿜어 내므로 기분도 좋아지고 피곤함도 덜 느낀다.

하지만 이 적응 과정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오전 10시 이후에 외부로 운동을 나간다면 우선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르고 물을 충분히 보충한다.

예를 들어 평소 30분 달리기를 했다면 20분으로 줄이고 몸 상태를 살펴본다. 심장 박동이 심하게 뛰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속도를 줄인다.

더운 날씨 운동은 더 많은 땀을 더 빨리 흘리게 된다. 이는 우리 몸이 열에 작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보통 5~10분 가량의 워업 운동을 한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땀이 덜 나게 되므로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한다면 남성 보다 조금 더 워업하는 것이 좋다.

## 따듯한 샤워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며 열을 식힌다. 김슨 박사는 따듯한 샤워 또는 뜨거운 목욕물에 10분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은 계속 열에 익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열 적응

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차가운 음료를 섭취하고 새 옷을 입는다

더운 날 운동을 하기 전 얼음 음료를 마시면 탈수에 도움이 되고 상상으로 또 실제 몸을 식혀주는 역할도 한다. 밖으로 나가기 20분 전쯤 16온스 정도의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운동 직전 찬 음료를 마시면 운동 도중 배가 아플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차가운 물수건, 얼음 자켓 또는 밤새 냉동실에 넣어둔 옷을 입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찬 물을 얼굴에 뿌리거나 얼음 덩이를 핥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영국 캠블리지 앤글리아 거스킨 대학의 애슐리 윌못 교수는 조언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열을 식히는 효과는 단기적인데 자기 최면에 빠져 과도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못 교수는 “운동전 몸을 식히는 사람

들은 기분이 매우 좋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므로 더 빠르고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신체 신호를 인지한다

날씨가 더운 날 운동을 하는 동안 메스꺼움과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을 느낀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그늘을 찾는 것이 좋다.

조기 일사병의 증상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일사병은 판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국 브링턴 대학의 네일 맥스웰 환경생리학 교수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몸이 과열됐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뜨거운 날씨에는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좋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무더위로 갑작스런 혼돈 등 인지 장애 조짐을 보인다면 무조건 나무나 시원한 그늘을 찾아 대피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맥스웰 교수는 30분 이내에 “몸을 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시원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김슨 박사는 “더운 날씨에는 짧은 코스를 돌고 더위를 느낀다면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존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 “낯선 전화 받지 마세요, 불법 ‘로보콜’입니다”

연방 통신위원회 본격 차단 나서  
상품판매 대부분 불법이고 사기  
자동차 워런티 판매 가장 많아  
노인 상대 메디케어 판매 기승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로보콜’ 전화로 많은 미국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 워런티 보험, 건강 보험, 심지어는 정부를 사칭하며 소셜

번호를 요구하는 사기 등등 연방 정부에 신고된 ‘로보콜’ 종류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급기야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지난 6월 30일 본격적인 규제에 돌입했다. FCC가 ‘스티어/셰이큰’ (Stir/Shaken)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로보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단속이 ‘로보콜’ 근절을 위한 만능열쇠는 아니다. 귀찮은 ‘로보콜’ 을 차단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 로보콜

전화를 받았는데 실제 사람이 아니라 녹음된 음성 메시지가 나온다면 분명 ‘로보콜’ 이다.

‘로보콜’ 을 이용해 무언가를 팔겠다고 하면 이걸 불법이고 사기로 보면 된다. 반드시 수신자의 ‘서명 동의’ 를 받아야만 ‘로보콜’ 전화를 할 수 있다. 서명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이다. 사전 서명한 동의서를 보냈다고 해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렇다고 모든 ‘로보콜’ 에 서명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선거 후보를 위한 홍보나 후원을 요청하는 자선 전화, 비행기 취소 또는 학교 개강 연기 등 순수 정보성 ‘로보콜’ 은 수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또 빗 독촉 전화, 또는 약국에서 자동 처방전 재조제를 알리는 ‘로보콜’ 역시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무언가를 팔려고 한다면 모두 불법이며 대부분 사기다.

수신 차단 회사인 ‘유메일’ (YouMail) 은 지난 6월 한 달간 미국인들에게 걸려온 ‘로보콜’ 만 44억 건으로 추산했다. 이 중 5억7,300만 건은 자동차 워런티와 건강 보험 관련 사기 전화였다. 사기범들은 계절마다 수법을 바꾸기도 하고 또 특정 사건을 이용하기도 한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마이애미 콘도 붐과 피해자를 돕자는 불법 ‘로보콜’ 자선 전화



가 기능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에는 백신 관련 사기 전화도 급증했고 또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 등록 기간을 겨냥한 사기 ‘로보콜’ 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FCC는 자동차 워런티 사기 전화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올해 가장 많다고 경고했다.

FCC 월 위키스트 대변인은 “낯익은 지역 번호 또는 정부나 경찰 번호와 유사한 번호가 걸려 오면 무심코 또는 겁이나 전화를 받게 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 FCC의 차단 전략

FCC의 작전은 간단하다. 전화회사가 ‘로보콜’ 발신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은 전화는 수신자에

연결해 주지 않는 방식이다.

불법 ‘로보콜’ 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한다. 남의 주소로 사용자 권한을 받은 후 마치 진짜 사용자 전화인 것처럼 전화를 거는 방법이다. 남의 것에 끼어 들어가는, ‘스누핑’ 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해킹 수법을 이용한다.

따라서 FCC는 6월 30일까지 모든 전화 회사들은 반드시 정부의 ‘로보콜 미터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해 증명서를 받도록 했다. 현재까지 증명서를 받은 곳은 1,500개 이상이다. 또 전화회사들은 9월 28일부터 FCC 로보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연결을 차단해야 한다. 등록된 ‘로보콜’ 만 연결을 시키도록 한 것이다.

전화 회사들은 지난 수년 동안 가짜 전화 차단에 주력해 왔다. T모빌, AT&T, 버라이즌 같은 미국 대형 전화 회사들은 2019년 이미 ‘스티어/셰이큰’ 이라는 불법

스누핑 기능 차단에 주력해 왔다. 또 전화 차단 기능의 앱들을 생산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 해외 불법 로보콜 차단

외국 통신사들 역시 9월 28일부터 FCC ‘로보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과 통화 연결이 가능해진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의 통화 연결이 차단된다.

해외 통신사들의 통신망을 해킹한 불법 로보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정부에 등록된 외국 통신사들의 명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여기에 저장된 전화만 미국 통신사들이 수신자와 연결된다. 외국 통신사가 불법 로보콜을 미국에 연결해 주면 FCC 등록이 취소되고 더 이상 해당 통신사의 미국 통화는 불가능하다.

## 새 차단 계획이 만능은 아니다

어떤 회사들은 합법적으로 ‘발신자 ID’ (caller ID)를 이용해 전화를 한다. 주로 특정 부서 번호가 아니라 800번 등 무료 전화 또는 교환대 번호를 사용한다.

해커들은 이 번호를 이용해 가짜 ID를 만든 다음 마치 경찰서나 이웃에서 걸려오는 전화처럼 조작한다. 이번에 도입된 ‘Stir/Shaken’ 기술은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전화 회사들은 이 기술로 전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번호 인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을 만들어 끼어들기 식 가짜 전화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만능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스스로 방어하기

사실 믿을 만한 정부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온다면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커들은 정부 전화번호에 끼어들어 ‘로보콜’ 을 보내기도 한다. 이를 끼어들기 가짜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이 ‘스티어/셰이큰’ 기술 이기는 하지만 건수를 줄일 뿐이지 철벽 방어 무기는 아니다.

우선 모르는 전화를 무조건 받지 않는다. 일단 받으면 무차별 공격을 당한다. 정부 서류는 메일로 보내진다. 전화로 협박하거나 정보를 묻지 않으므로 절대 받지 않는다.

귀찮은 로보콜이 걸려 왔다면 FTC의 ‘DoNotCall.gov’ 를 통해 신고한다. 걸려 온 전화번호와 정확한 날짜, 시간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신고한다. FTC가 신고된 전화를 추적할 것이다. 존킴기자

광고·구독 (323)620-6717  
contact@usmetronews.com



# WARNING

응급실 사용이 지원되지 않는  
의료비상조플랜 브론즈에 가입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UPGRADE REQUIRED

지금 바로 Upgrade 하셔서 (월\$20/유닛)  
응급실 사용은 물론, 매년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검진 피검사 혜택(\$200)도 받으세요.

# 714-335-9585

Otis Ee, 크리스천 헬스플랜 전문가

건강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인 분들도  
연락주세요.

크리스천헬스플랜(Healthcare Sharing Ministry)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플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Member to Member 방식으로 서로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성경적 방식의 의료비 분담사역입니다.

#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홈케어 수요 급증하는데  
임금 낮고 이직률 높아 인력난  
중산층 1만 달러 감당 어려워**

나이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양로원 입원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양로원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미국인들이 많다. 집에서 직접 남편을 또는 부인을 돌봐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도우미가 필요하지만 요즘 간병인 도우미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뉴욕 타임스는 홈케어를 원하는 미국인들이 많지만 인력난이 심해 도우미 구하기가 어렵다며 요즘의 실태를 보도했다.

테리 드리스콜은 매사추세츠 아마우스 포트의 집에서 거의 매일 40마일을 운전해 남편 켄을 보러 간다. 켄은 기억 장애로 메모리 케어 센터(기억력 회복 시설)에 입원해 있다. 입원비만도 한달에 1만달러다.

하지만 테리는 남편이 그곳에서 여생을 마감하기 원치 않는다. 72세의 동갑내기인 이들은 대학때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거의 10년전 남편 켄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간호사인 테리는 “내 계획은 집에서 그를 돌보는 것이었다”면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테리는 처음 수년간은 근무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바꿨다가 결국 계획보다 일찍 은퇴를 했다. 남편은 어덜트 데이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하고 지역 비영리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남편은 더욱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테리는 그런 남편을 잠시라도 떠날 수 없었다.

테리는 2명의 독립 파트타임 홈케어 보조원을 고용했다. 그런데 팬더믹이 닥치면



테리 드리스콜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남편 켄이와 함께 매사추세츠의 한 기억 회복 시설의 벤치에 앉아 있다. 테리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홈케어를 하고 싶지만 보조원을 구하지 못해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New York Times Pyllis Dooney

입 소문으로 찾아봐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동네 인력 전문회사에서 시간당 30~34달러를 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나마 사람이 없다. 테리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았으니 노동력 이후에 전화를 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홈케어 보조원 인력난 심화

지난 수년동안 홈케어 업계에 인력난이 심하다. 사립 회사와 체인, 비영리 프로그램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원되는 홈케어가 뒤죽박죽된데다가 주정부와 연방 정부 규정의 혼동되는 정보로 운영되고 에이전시를 피해 개인적으로 고용하려는 ‘그레이마켓’ (준 암거래 시장)까지 가세했다. 거기에 코비드 19가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홈케어 협회’의 빅키 흑 사무국장은 “20년간 이분야에 있었지만 인력을 구하는데 이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협회에는 4,000개의 에이전시가 가입해 있고 종업원만도 50만명에 달한다.

연방 노동 통계청은 지난해 양로병원과 기타 시니어 주거지 및 홈 케어 직원을 포함해 지난해 34만2,000명의 이분야 종사자들이 직업을 떠난 것으로 추산했다. 떠나는 이유로는 감원, 건강문제, 코비드와 관련된 불안, 자녀 양육 문제 및 기타 어려움으로 인한 자진 사퇴다.

더 큰 문제는 수요는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동안 양로원 입원 환자

는 줄어드는 추세다. 또 팬더믹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수용 인원의 75%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돌보는 홈케어 인구는 더욱 늘고 있다.

극빈자 지원용 메디케이드(메디칼) 수혜자 80만명이 홈케어를 위해 주정부 대기 명단에 올라 있다. 개인이 돈을 지급하는 인력 수급 회사들은 비즈니스를 닫고 있다.

양로 시설은 코비드 이후 더욱 매력을 잃고 있다. 입원 환자는 죽고 가족들은 수개월간 입원 환자를 만나지도 못한다. 또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팬더믹 이전에도 연방 노동통계청은 2029년까지 100만명의 홈케어 관련 직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 보너스 지급하며 직원 확보 전쟁

많은 인력 수급 회사는 직원을 구할 때 보너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흑 사무국장은 인센티브로 500달러는 기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국 체인인 ‘홈 인스태드’의 한 업체는 1,200달러를 지불한다.

30개 주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시니어스 헬핑 시니어스’는 새 직원에게 3개월이 지나면 100~5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55세 이상 7,000명의 홈케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너스만 가지고는 이직률이 높

은 이분야 직원을 붙잡을 수 없다. 2018년 이직률은 80% 이상이다. 이후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분야 직원 2/3는 매년 이직한다.

일부 종사자들은 급여가 더 높은 소매업등으로 옮기고 있고 일부는 아예 독자적으로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선다. 대형 에이전시의 중간 비용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의 면허 있는 간호 보조사인 웬디 컬릭슨은 수개월 간 시간당 13달러 주는 에이전시에서 일하다가 시간당 25달러를 받고 개인 보조로 일한다. 아직 매사추세츠 시간당 29~30달러에는 미치지 못해도 에이전시 고용 보다는 더 많은 받는다. 지난해 전국 간호 보조사 임금은 23~24달러다.

2018년 미국에는 약 280만명이 홈케어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유색인종 여성이 대부분이며 1/3은 이민자다. 이들의 수입 중간가는 시간당 12달러로 연 1만7,200달러의 수입에 그친다. 이중 극소수만이 베니핏을 받고 있고 절반은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공공 지원을 받고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홈케어 보조원 40만명을 대표하는 ‘SEIU 로칼 2015’ 노조의 에이프렐 버넷은 “보너스만으로는 안된다. 근무자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된 임금을 주지 않는 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5면에 계속

프리미엄 news  
usmefronews.com

서 집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겁을 먹기 시작했고 보조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았다. 테리의 딸이 이사를 와 수개월 동안 도와줬다.

지난 6월 테리는 잠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남편 켄을 기억력 회복 치료를 해주는 생활 지원 시설에 입원시켰고 가족들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딜레마에 빠졌다. 테리는 혼자서는 도저히 남편을 돕기에 역부족이다. 하지만 홈케어 보조원을 찾을 수도 없다.

# “여행객 울리는 렌터카 예약 사기 주의”

## 렌터카 부족으로 다급해진 소비자 심리 이용 ‘기프트카드’ 나 ‘프리페이드’ 카드 결제 요구하면 사기 여행 전 미리 예약하고 출발 전 꼭 확인 필요

팬데믹 규제가 풀리고 여름 휴가철 자동차 렌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렌터카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허위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통한 렌터카 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팬데믹으로 냉각됐던 렌터카 시장이 갑자기 풀리면서 유명 관광지 자동차 예약이 쉽지 않은 데다가 가격도 크게 올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할인을 내세운 가짜 예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FTC의 소비자 및 비즈니스 교육국의 에밀리 우 변호사는 원하는 자동차를 예약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준다는 말에 쉽게 속는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미노인협회(AARP) ‘사기방지네트워크’ 과 ‘베터 비즈니스 뷰로우’(BBB)에도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지에 가서야 예약된 사실이 없음을 알고 황당해하는 사례도 신고됐다.

AARP ‘사기방지네트워크’의 에이미 노지거 피해자 지원국장은 주로 온라인에서 ‘저렴한 렌터카’ 등의 검색하다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검색된 전화번호가 실제 렌터카 전화번호로 생각한다.

기프트 카드(gift card) 또는 사전 지불된 데빗 카드(prepaid debit card)로 지불하면 특별 할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면 거의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카드를 구입해 핀번호를 전해주면 사기범들은 이를 현금으로 찾아 잠적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자동차로 빌리지 못하게 된다.

노지거 지원국장은 이런 사기에 누가 당하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사기범들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피해자를 현혹시킨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요즘같이 렌터카 가격이 비싼 시기에 원하는 자동차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타켓이 된다는 것이다.

BBB에도 이런 유형의 사기 피해 금액이 200~800달러씩 신고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초에 접수된 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렌터카 회사 버젓을 사칭한 가짜 전화번호를 통해 한 소비자가 사전 지불된 비자카드 280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 전화번호를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고 실제 버젓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약을 한 기록이 없었다.

지난 6월에도 ‘알라모’ 회사를 사칭한 전화 사기를 당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엔터프라이즈’ ‘알라모’ ‘내셔널’을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 홀딩스’의 리사 마티니는 뉴욕 타임스와 이메일을 통해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기프트카드 관련

문제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4월 기프트카드 사기에 대해 소비자에 경고한 바 있다.

마티니 대변인은 엔터프라이즈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만 프로페이드 카드로 대금을 받으며 전화로는 대금 지불 정보 또는 카드 번호를 묻지 않는다면 예약 때 대금을 지불해도 되지만 꼭 할 필요는 없다고 공지했다.

페이먼트를 요구하거나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분명 사기라고 그는 경고했다.

‘허츠’ 역시 절대 전화로 프리페이드 카드를 요구하지 않으며 반환할 때 만 이런 카드를 받는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때 가능하면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라고 말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렴하게 원하는 자동차를 빌리는 방법은

렌터카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하는 것이 좋다. 보통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맨 마지막에 자동차를 빌린다. 그러나 올해는 자동차부터 빌린 후, 또는 항공편 예약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또 유명 관광지를 찾을 때는 대여하려는 자동차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세단 승용차는 미니 밴보다 쉽게 빌릴 수 있다. 또 공항보다는 관광지 근처 렌터카 회사에서 더 싸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그곳까지 오고 가는 비용도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하면 된다.

AAA 또는 AARP 같은 멤버십 회사를 통해 할인 가격으로 빌릴 수 있고 렌터카 회사의 고객 우대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할인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렌터카 부족 현상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고객 수요가 급감하자 렌터카 회사들은 보유 자동차를 대거 팔았고 올해 들어서도 자동차 주문을 줄였다.

하지만 팬데믹 기세가 꺾이면서 여행객은 늘어났지만 렌터카 회사들은 아직 물량 확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또 반도체 부족까지 가세돼 자동차 생산 및 공급도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들은 렌터카 회사보다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일반 소비시장에 먼저 자동차를 공급하면서 렌터카 회사들의 인벤토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넷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 렌터카 사기를 피하려면

예약 때 기프트 카드 또는 사전에 돈을 지불하는 프리페이드 데빗 카드를 요구한다면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된다. 노지거 소비자 지원국장은 “정상적인 렌터카 회사는 결코 이런 카드로 사전에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면 직접 렌터카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소비자 서비스 번호를 찾아 직접 확인해 보라고 BBB가 조언했다.

FTC의 우 변호사는 자동차를 렌트할

## 근로 소득 없어도 올해 자녀 크레딧 대상

### 자녀 크레딧

9면에서 계속

2021년 수입도 이와 유사하다면 올해 택스 크레딧을 받기에는 수입이 너무 높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영구 지불되는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되므로(자녀 1인당 2,000달러씩) 남은 6개월간 매달 선

지불금 333달러가 지불된다.

내년 봄 2021년 세금 보고 때 이미 선지불금으로 2,000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2020년에 받았던 500달러의 환급은 불가능하고 IRS에 1,5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만약 확대된 새 택스 크레딧을 받지 않고 예전의 택스 크레딧으로 페이먼트를

받는다면 월 지불금은 자녀 한 명이면 167달러, 2명이면 333달러, 3명은 500달러다.

### 매달 지급되는 선 지불금을 취소하거나 수입을 바꿀 수 있다. 주소와 은행 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IRS 웹사이트의 ‘차일드-택스-크레딧’ 업데이트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정정할 수 있다. IRS 계좌번호나 기타 정부 계좌번호가 없다면 구좌를 개설할 때 사진이

포함된 운전 면허증 등 신분 증명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선지불금을 받지 않으려면 IRS의 질의 응답 ‘도픽 J’를 통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지불금 받지 않는 ‘옵트 아웃’을 선택하려면 부부가 따로 신청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분기별 예상 세금 보고를 통해 또는 지급되는 급여의 세금 납부 금액을 올려 조정할 수 있다.



# 시니어 300명에 '도시락 나눠주기' 행사

##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노인센터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이하 노인센터)가 21일 동양의학 혜택을 강화한 메디케어 보험회사 클레버 케어(Clever Care) 후원으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노인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65세 이상 300명의 시니어들에게 클레버 케어가 제공한 점심 도시락과 마스크, 손 세정제, 경동 나비엔의 머그컵, 비상용 호루라기 등을 나눠줬다.

클레버 케어는 메디케어 HMO 파트 C 어드밴티지 회사로 무제한 침술, 한약재 등등 한인사회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동양의학 혜택을 보장 강화한 메디케어 상품을 개발해 최근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데이브 피아우스 CEO를 비롯해 클레버 케어 관계자들이 나와 한인 시니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줬다.

노인센터 정문섭 이사장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야 하는 한인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점심 도시락 행사를 후원한 클레버 케어에도 감사했다.

데이브 피아우스 CEO는 노인 센터를



도시락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 정문섭 이사장(왼쪽부터)과 클레버케어 메디케어 보험사 데이브 피아우스 CEO, 브릿 트래비스 세일즈 부사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통해 한인 커뮤니티 시니어들과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한인사회와 지속적은 유대관계로 시니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니어센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총 1만1,460명의 시니어에게 도시락, 마스크 등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김정섭 기자

## 운전 습관으로 조기 알츠하이머 확인 가능

### 토론토 대학 사예흐 베이샷 연구

시니어들의 운전 습관으로 조기 알츠하이머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토론토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사예흐 베이샷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잠재력을 가진 시니어는 운전을 더 느리게 한다거나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고 야간 운전이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베이샷은 이번 연구를 위해 워싱턴주 거주하는 65세 이상 정상인과 잠재적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는 시니어를 절반씩 139명을 선정해 1년간 이들의 차량에 위성위치 확인 장치(GPS)를 장착하고 운전 습관을 측정한다. 연구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운전 습관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아냈다.

베이샷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과 운전 습관 등의 일상생활 내 움직임으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86%의 정확도"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구진은 척수 검사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과 같은 검사를 사용해 임상 전 알츠하이머 증상자를 구분했다. 이에 대해 영국 알츠하이머 연구소의 러라 핏스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며 "운전 습관 변화는 종종 조기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이 말하는 전조증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알츠하이머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 "심장 건강을 챙기고 사회적, 정신적 활동을 계속 하면서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했다.

### 간병인 구하기

23면에서 계속

노조는 현재 각 카운티와 시간당 임금을 앞으로 3년 이내에 16~18달러로 인상하고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혹 사무국장은 인력 수급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과제라고 말했

다. 직접 고용하는 홈케어 비용이 이미 많은 중산층 가정에서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테리는 매달 1만달러를 기억 회복 시설에 지불하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밤낮을 돌보다가는 자신의 건강을 망칠 수도 걱정한다. 그녀에게는 잠시 쉴 시간이 필요하다.





# 가을의 맛 포도의 계절을 와인으로 만끽

가을을 앞두고 검붉은 포도들이 슬슬 마켓 과일 판매대를 장식하고 있다. 포도를 사다가 집에서 와인이나 담가 먹어 볼까. 와인값도 비싼데...



## 포도주 만들기

예전 한국에서 포도주를 담글 때면 포도에 설탕을 넣고 소주를 조금 넣어 보관한다. 설탕을 넣는 이유는 당도가 낮아 이를

그런데 마켓에서 파는 포도로도 와인을 만들 수 있을까.

카버넷 소비뇽, 멀로, 피노누아... 잘 알려진 와인용 포도는 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알 굵은 거봉 포도, 영동 포도 등 늘 즐겨 먹는 포도로도 와인이 가능할까.

와인을 만들려면 포도에 당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야 한다. 당이 효모를 만나 분해되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알코올(에틸)이 나온다. 효모가 당을 먹고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우리를 발효라고 한다.

와인용 포도 품종은 50가지가 넘는다. 이들 포도는 작고 과육이 적은 대신 껍질이 두텁다. 일반 포도보다 당도는 상당히 높다.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우선 비가 많지 않아야 되고 비가 와도 물이 쭉쭉 잘 빠지는 토양이어야 한다. 또 낮에는 뜨겁고 해가 잘 들고 밤에는 기온이 낮은 해안성 기후 지형이 최적이다.

와인은 프랑스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옛날 말이다.

요즘은 캘리포니아 와인이 프랑스를 능가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는 포도 내에 당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당이 많으면 효모들이 더 즐겨 먹는다(분해).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날씨와 강력한 태양이 포도의 껍질을 단련 시켜 충분한 당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하루 종일 강력한 캘리포니아 햇빛을 받는 포도송이들이 밤이면 해변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열기를 식히고 또 다음날 햇빛 목욕을 반복하는 '연단'의 시기를 거치면 튼튼하고 당도 높은 질 좋은 포도로 거듭난다.

보충하기 위해서다. 포도주가 달달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설탕이 가미됐기 때문이다. 충분히 발효된 포도주는 단맛이 거의 나지 않는다. 당이 거의 다 발효됐기 때문이다. 물론 알코올 도수는 그만큼 더 세지게 마련이다.

우선 포도를 따다. 와이너리에서는 가지도 함께 넣지만 집에서는 포도만으로 충분하다. 포도를 손으로 으깬다. 너무 으깨면 과육이 뭉그러지므로 살살 다룬다. 포도의 껍질에는 당을 알코올로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모가 잔뜩 묻어 있다. 이 효모가 즉시 당을 먹으며 발효를 시작한다.

서서히 알코올 도수는 높아질 것이고 도수가 높아진 알코올은 자신을 탄생시켜주는 효모를 모조리 죽여 버린다. 보통 알코올 농도 14%면 효모가 소멸돼 더 이상 분해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요즘은 도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수퍼' 효모로 도수를 18%도 이상까지 끌어 올려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탁한 알코올 액체를 잘 걸러 껍질과 찌꺼기를 다음 병이나 통에 보관해 숙성 과정을 거치면 근사한 와인이 탄생한다. 우리가 먹는 일반 포도로 담근다면 아마도 설탕을 조금 넣어야 할 것이다.

과테는 하루 2리터의 와인을 마셨다고 한다. 그래도 82세까지 살았다는데 지금의 와인 도수는 아닐 것이다. 얼마전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소량의 와인 한잔(1주일에 와인 한병)이 심장마비, 뇌졸중, 협심증 등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와인 값도 비싼데 집에서 와인 담가 먹는 재미로 지루한 늦여름을 색다르게 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남가주는 놀이공원의 메카



홍기자의 웰빙정보

잘먹고  
잘살기

## 남가주 놀이공원

놀이공원들 4월부터 영업 시작  
예약·입장권 온라인 구매 필수  
백신 미접종자 마스크 착용 요구

재미있는 탈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놀이공원은 어린이들은 물론 모든 연령대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소다.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답게 남가주에는 디즈니랜드와 레고랜드, 너츠베리 팜, 유니버설 스튜디오,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 등 유명 놀이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코비드 19로 인해 1년 이상 문을 닫았던 각종 놀이공원들이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하나둘 다시 개장하면서, 그동안의 암울했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심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코비드 시대를 맞아 조심스럽게 재개장한 남가주 유명 놀이공원들의 코비드 방역수칙 및 입장 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아봤다.

## Disneyland

### 디즈니랜드(Disney Land)

자녀들이 열광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천국, 지구상 가장 행복한 장소라 불리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소재 디즈니랜드. 지난 6월 초까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한해 입장을 허가했으나, 6월 15일부터는 타 주민들의 입장도 허용하고 있다. 코비드 방역수칙에 따라 3세 이상 모든 방문객들이 해당 날짜의 입장권과 예약권(온라인에서 예약 가능)을 지참해야 입장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디즈니랜드의 모든 방문객들이 백신 접종 혹은 코비드 19 음성 테스트 결과를 미리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칼스배드에 위치한 레고랜드.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유아용 라이드와 볼거리가 가득하며, 곳곳에 유모차 정류장 등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

▷방문 팁: 2021년 7월 기준 개장 시간은 디즈니랜드는 오전 8시~오후 10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오전 8시~오후 9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의 2개 테마파크(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하루 83달러에 3일 동안 즐길 수 있는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https://disneyland.disney.go.com/>



### 레고랜드(Legoland)

칼스배드에 위치한 레고랜드는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방문하기 안성맞춤이다. 다른 놀이공원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유아용 라이드와 볼거리가 가득하며, 곳곳에 유모차 정류장 등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 수천 수억 개의 레고 조각으로 만든 라스베가스 와 뉴욕, 파리와 런던 등을 구경할 수 있는 '미니 랜드'는 어른들도 열광하는 레고랜드의 자랑이다. 디즈니랜드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이 필수며, 마스크 사용을 권고한다.

▷방문 팁: 2021년 7월 기준 입장료는 1일 테마파크 입장권이 94달러, 테마파크와 시 라이프(See Life) 수족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입장권은 104.99달러다. 1년 회원권이 179.99달러기 때문에 한 해 2번 이상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1년 회원권을 구입할 것을 권한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다.

<https://www.legoland.com/california/>



###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

할리웃 영화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는 놀이공원.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 라이드 등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열광할 볼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다. 실내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예약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방문 팁: 일반 입장권의 가격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 99~129달러, 타주 주민은 109~129달러다. 1년 회원권은 189~249달러로 역시 1년 안에 2번 이상 방문 계획 시 1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개장 시간은 2021년 7월 기준 주중은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토, 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다.

<https://www.universalstudioshollywood.com/web/en/us>



### 너츠베리 팜(Knott's Berry Farm)

할로윈 시즌에는 스캐리 팜(Scary Farm)으로 변하는 캘리포니아 부에나 파크 소재 너츠베리 팜은 여름철에는 오렌지 카운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물놀이 공원인 소크 시티(Soak City)를 함께 개장한다. 디즈니랜드, 레고랜드와 마찬가지로 입장 전 사전 예약이 필수로, 입장권 역시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방문 팁: 2021년 7월 기준 1일 입장권이 너츠베리 팜은 57달러, 소크 시티는 48

달러부터 시작한다. 개장 시간은 너츠베리 팜은 일~금요일은 오전 10시~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11시이며, 소크 시티는 오전 10시~7시다.

<https://www.knotts.com/>



### 식스 플래그 매직마운틴(Six Flags Magic Mountain)

디즈니랜드나 레고랜드의 라이드는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조금 성장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스틸 만점의 라이드가 가득한 식스 플래그 매직마운틴을 추천한다. 105피트 리프트와 360도 공중회전이 보는 것만으로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배트맨(Batman)이나 골리앗(Goliath)과 같은 '고난도' 라이드는 물론, '난이도 중·하 이하' 인 가족용 라이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과 입장권 구매가 필수다. 여름철 물놀이 공원인 허리케인 하버(Hurricane Harbor)도 개장한다.

▷방문 팁: 2021년 7월 기준 개장 시간은 일~금요일은 오전 10시 30분~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오후 10시다. 입장료는 1일 입장권이 49달러, 연 회원권은 94.2달러다.

<https://www.sixflags.com/magic-mountain>

### 홍(서)지는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라디오 서울·미주 한국일보 기자/현 공인 회계사·슈퍼맘/소셜미디어·웰빙 기사다수 게재

‘코비드 19 - 그 시간을 넘어’ 세 번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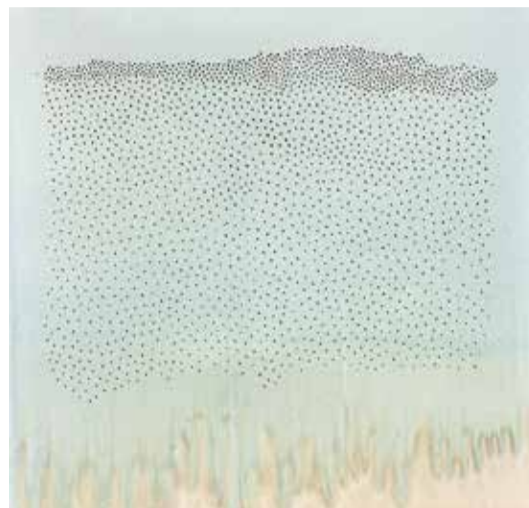
## 팬더믹의 경험... 우리 삶의 의미 찾아



페기리



박영라



김서연



조민

### COVID 19 BEYOND THE TIME

19명 작가 릴레이 작품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많은 관심 속에 타운 내 화제의 전시회가 되어버린 “코비드 19 - 그 시간을 넘어서” 릴레이 전시회가 이제 중반을 향해 이번 달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된 리앤리 갤러리(이 아그네스)의 세 번째 전시회에는 페기리, 박영라, 김서연, 조민 작가가 바톤을 이어받는다.

#### ◇작가 페기리

아름답고 섬세한 선과 색의 조합. 그 안에 펼쳐지는 삶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숨은그림찾기 하듯 몰두하게 된다. 얼핏 보면 아름답기만 하다고 느껴지는 그녀의 작품에는 ‘인간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서서히 변해져 가는 인간의 모습. 빠른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감지한 페기리 작가는 그림을 통하여 더 많은 통합과 공생, 균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전통성과 보편성이 있는 인간관계의 회복, 그녀가 추구하는 작품 얘기다.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이는 그녀의 작품은 독특하다. 그것은 네트워킹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도덕, 존중 및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갈

#### 페기리 작가

테크놀로지가 우리생활에 미치며 서서히 변해져 가는 인간의 모습

#### 박영라 작가

팬더믹 시대의 새로운 질서... 우리는 ‘다시 살기’를 시작할 것

#### 김서연 작가

도전과 위로 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찬연한 아름다움

#### 조민 작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슬픔,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필요성을 의미한다. “사람 간에 서로 영감이 되고 신뢰와 위로가 되고 싶다”는 페기리 작가. 홍익미술대과 펜실바니아 아카데미 파인아트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미전역을 통한 왕성한 작품활동과 함께 많은 미술 애호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작가다.

#### ◇작가 박영라

“규칙들이 해체된다. 지금까지 튼실하던 질서의 조각들이 뼈죽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들쭉거리며 돌아왔기도 하고 맥없이 떨어져 나와 흩어지기도 한다” 작가 박영라의 말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팬더믹을

겪으며 쏟아낸 그녀의 사회에서 모든 시스템이 정지속의 해체. 이 해체된 각각의 조각들이 해체모임을 거듭한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들 속에서 우리들 각자는 ‘다시 살기’를 시작할 것이다. 흑연으로 만들어진 선들, 그 선들이 무리를 이루며 캔버스 위를 움직여 다닌다. 그 “선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입자이며, 선들은 어떤 의미나 상징을 내포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며 캔버스 위에 놓인 특수한 사물들뿐이다.” 라는 작가의 설명이다. 흑과 백의 모노톤으로 제작된 작품에선 조용한 듯하나, 그 안의 수많은 균열과 움직임들이 마치 그녀 삶의 팬더믹처럼 보인다. 작가 박영라는 덕성여대 회화과를 거쳐 독일의 필립스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와 순수예술을 전공했다. 2013년 로스엔젤레스로 이주하여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에서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왔다.

#### ◇작가 김서연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섬세함을 넘어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꼼꼼히 캔버스를 도려낸 작은 조각들,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도전이 있고 또 물음이 있다. 최근 작품 시리즈 ‘cut pieces’는 칼로 표면을 긁는 일종의 죽음을 내포한다. “죽음과 같이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곳으로 향한 행위이며, 예술 또한 분주한 삶 속에서 다다를 수 없는 곳이기도 했기에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들이 필요했다”는 작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끈임없는 단순 노동 행위의 반복은 열정적으로 삶의 희망을 품게 하고, 영원을 기다리는 끝에 관한 이

얘기라고 말한다. 붓이나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념을 일종의 행위라는 표현을 빌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간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작품에는 도전과 위로, 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찬연한 아름다움이 함께 한다. 김서연 작가는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관화를 전공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5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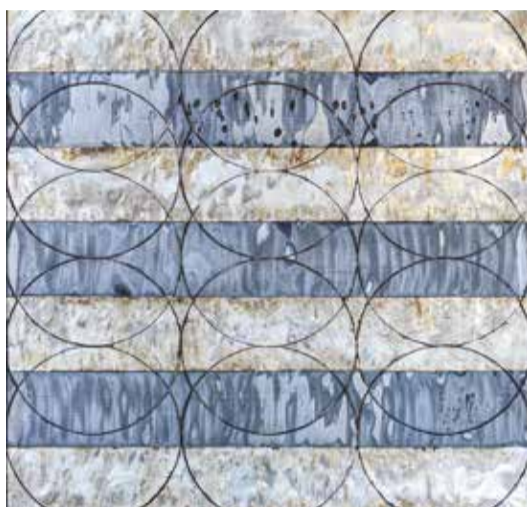
#### ◇작가 조민

조민 작품에는 사람들의 등장을 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일상에서 받은 영감은 그녀의 특유한 상상력을 동원한 무의식의 세계로 표현되곤 했다. 과거 또는 상상에서 포착된 순간을 낭만화하여 그녀의 작품에는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전시에선 마치 그녀의 자화상처럼 보이는 밝은 색조와 시크한 여인의 표정에서 세련된 여성스런 아름다움이 보여진다. “팬더믹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아 있다는 의미와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슬픔,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삶의 소중함과 세속적인 감각이 얼마나 고양되었는지 알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녀의 작품에서 여성 인물의 묘사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계속 발전하는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민작가는 조선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UCLA에서 실내디자인을 공부했다.

전시 기간: 7월 31일~8월 14일까지  
장소: 리앤리갤러리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문의: (213) 365-8285 이아그네스

‘코로나 19 - 그 시간을 넘어’ 네 번째 전시

# 작가와 관람객, 함께 휴식과 위로 얻는 전시



데이빗장



문동호



최미카엘



김영신

## COVID 19 BEYOND THE TIME

4명의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코로나 19 - 그 시간을 넘어서”의 네 번째 그룹의 전시회에는 데이빗 장, 문동호, 최 미카엘, 김영신 작가가 초대된다. 4명의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방식이 기대되는 전시회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리앤리갤러리(이아그네스)에서 열린다.

### ◇데이빗장

에너지 넘치는 작가다. 평면적인 회화로 부터 시작하여, 믹스미디어의 접목과 인스톨레이션 까지 그의 표현 영역은 광대하고 열정적이다. “내 작업은 생존, 생존전술, 그리고 이러한 전술의 만료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강하다. 끊임없는 작품의 진행 과정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물의 집합이 아닌 획득과 손실, 생성과 소멸이라는 일련의 사건의 집합이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적인 생산 시스템과도 같다. 죽음, 느낌, 고통, 세계의 우리의 존재. 모든 프로세스는 이벤트 기반이지만 시간 감각은 다분히 감성적인 것이다. “내 작업은 한 형태의 에너지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운동, 소리, 빛과 같은 입자가 위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변형하며, 현실에 관여하려 한다”는 작가의 설명이다. 그러한

### 데이빗 장 작가

팬더믹으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삶의 이야기

### 문동호 작가

일상 속에서 찾아낸 소재들 우리 마음의 긴장을 풀어줘

### 최 미카엘 작가

인간의 미약함 인형과 다름 없어 인형을 통해 꿈과 생명력 주고 싶어

### 김영신 작가

작품의 형태, 표면의 색과 디자인 관람자들과 공감, 소통 되길

‘생활 전술’의 탐구를 계속하는 데이빗 장 작가는 캘리포니아 오브 비주얼 아트를 거쳐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14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통해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 ◇작가 문동호

작품을 보고 있으면 우리를 먼 옛날 동심의 세계로 소환한다. 어린시절 누나의

추억, 여전히 함께 있는 벗, 지쳤을 때 받고 싶은 작은 위로 등등...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일이나 잊혀졌던 소소한 생활의 이야기들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풀어어나간다. 일상 속에서 찾아낸 소재들은 우리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미소 짓게 한다. “코로나 19는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두려움과 많은 지침 속에서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단지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작은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작가의 소박한 바람이다. 서울 미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후 광고디자인과 신문만평, 어린이 그림책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 ◇최 미카엘

작가는 오랜 시간 인물화에 집중한 파스텔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해왔던 작업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코로나 19는 찾아왔고, 무엇을 그릴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 속에 그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캔버스에 다 집어넣었죠” 그간의 작업 과정을 말한다.

조각조각 그려진 그림들을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구성해서 그리고, 지우고, 칠하고, 깎고, 붙이고, 오리고, 다시 그린 믹스미디어 작품들이다. 어려웠던 팬더믹을 겪어내며 다시 태어난 작품에 새로움을 발견한 듯 그는 최근의 작업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인간의 미약함이 인형들과 다름이 없음을 느끼며, 인형을 통해 그림으로나마 그들에게 꿈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어요. 그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며, 더욱 겸손해지고 생명력이 있는 그

림을 그리고 싶었죠” 기존의 파스텔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훨씬 자유롭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시도한다는 최 미카엘 작가. 팬더믹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는 더욱 자유로워진 그의 작품세계가 기대된다.

### ◇작가 김영신

오랜 시간 흠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꾸준히 작업을 이어온 도예가다. 이번엔 선 보일 작품은 코비드로 제약이 많았던 현실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 그리고 작가의 상념들을 도자기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현대 도예와 한국 전통자기의 아름다움을 접목시키고, 도자기의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작품을 지향한다. “창틀의 격자무늬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제약성과 동시에 내 속 안에서 외부로 보는 시각의 매개체로 삼고, 실제로 무언가를 담는 병 형태에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담아 보려 했다.”고 작품 과정을 설명한다.

작품의 형태, 표면의 색과 디자인으로 표현된 작가의 이야기가 관람자들과 이해와 공감, 소통이 되길 바란다는 김영신 도예가는 홍익대 미술사 석사, 칼스테이트플러턴에서 세라믹 전공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국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그룹전을 통하여 작품을 소개해 왔고, 현재 플러턴의 메켄텔러 문화센터에서 도자기를 가르치고 있다.

전시 기간: 8월 21일~9월 4일까지  
장소: 리앤리갤러리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문의: (213) 365-8285 이아그네스

# 백투스쿨, 학교 가도 될까요?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워커

## 학교서 코로나 전파 많지 않아 백신접종·안전수칙 유지가 최선

백투스쿨 시즌이다. 평소 같으면 새학기, 새출발로 들뜬 기분일 텐데 올해는 조금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소식을 듣다보니 불안감도 커진다. 백투스쿨, 아이들이 새학기에 등교를 해도 되는 것일까.

학부모들의 걱정 어린 질문에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고자 숫자로 대답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뉴


욕타임즈는 학교 관계자들이 기본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방역에도 애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어린이 환자의 사망률도 높지 않은 편이다.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미국에서는 총 519명의 어린이가 코로나 19로 사망했다. 하지만 CDC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8~19년 학기 총 480명의 어린이는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다. 매년 1만2000명의 어린이는 자동차 사고(4,000명)나 약물 관련 사고(761명, 익사(900) 등으로 세상을 떠난다. 숫자로만 본다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할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도 우려가 된다면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1년여간 열심히 지켜온 안전수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독감 시즌에 앞서 독감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다. 12세 미만의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실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 재미있게 실천하는 스트레스 관리법


온 가족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한다.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다음에 소개하는 방법을 천천히 따라하면 된다. 여러 명이 함께 있다면 한 명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며 근육을 이완할 수 있도록 아래 지문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모니카 피트제럴드 교수팀이 소개한 방법으로 자녀들과 놀이처럼 해볼 수 있는 긴장 완화법이다.


 **레몬(손&팔)** 오른손에 레몬을 들고 있다고 상상한다. 우리는 레몬주스를 만들려고 한다. 손에 힘을 세게 쥐서 레몬즙을 짜낸다. 하나, 둘, 셋을 천천히 센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뒤 레몬을 손에서 탁 떨어뜨린다. 손과 팔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느껴본다. 왼손으로 바꿔서 다시 한다. 손과 팔의 긴장을 풀어준다.


 **고양이(팔&어깨)** 나른한 날, 게으른 고양이가 됐다고 상상한다. 팔을 앞으로 뻗은 뒤 어깨와 팔을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천

천히 머리 위로 올린다. 이어 두 손이 하늘에 닿을 듯 기지개를 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면서 어깨의 움직임에 느낀다. 손을 쭉 뻗은 상태가 되면 힘없이 푹 떨어뜨린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


 **거북이(어깨&목)** 어느 햇살 좋은 날,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거북이 됐다고 상상한다. 위험한 발소리가 들린다. 빨리 등껍질 속으로 숨어야 한다. 어깨를 위로 올리고 목을 움츠린 다음 잠시 멈춘다. 위험한 동물이 지나간다. 어깨에서 힘을 빼고 긴장을 푼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


 **풍선껌(턱)** 입 안에 커다랗고 딱딱한 풍선껌이 있다고 상상한다. 입 안에 있는 껌은 너무 딱딱해서 씹을 수 없다. 커다란 껌을 천천히 어금니로 씹는다고 생각하고 어금니와 턱 쪽으로 강하게 힘을 준다. 천천히 힘을 뺀다. 두 단계를 반복한다. 턱 관절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강약을 조절한다.

 **파리(얼굴)** 성가신 파리 한 마리가 코에 앉았다고 상상한다. 쫓고 싶는데 손을 움직일 수 없다. 코와 얼굴 주변 근육을 움직여 파리를 쫓아야 한다. 가능하면 목을 움직이지 말고 입과 코, 눈, 양볼에 힘을 줬다 빼면서 움직여본다. 파리가 날아갔다 다시 온다고 상상하며 반복한다.

 **코끼리(배)** 부드러운 잔디 위에 누워 있다고 상상한다. 그때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난다. 누워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다가

온다. 피할 시간이 없다. 나를 밟지 못하게 배에 힘을 꼭 주고 잠시 멈춘다. 코끼리가 옆으로 지나간다. 긴장을 푼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

 **스파게티(전신)** 뻣뻣한 스파게티가 됐다고 상상한다. 온몸에 힘을 쥐서 일단 뻣뻣하게 만든다.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힘을 준 상태에서 잠시 멈춘다. 스파게티가 익으면서 몸도 부드러워진다.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푼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

 **코코아(호흡)**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잡았다고 상상한다. 컵 속에는 달콤한 코코아가 들어 있다. 먼저 코로 코코아 향을 깊이 들이마신다. 숨을 내쉬면서 뜨거운 코코아를 식히기 위해 입김을 분다. 향을 깊이 마시고, 입김으로 식히는 일을 천천히 반복한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7)

**Ophthalmologist 안과전문의 (아프써멀러지스트)**  
눈이나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문하는 의사로 눈에 생긴 질병을 치료하고 수술한다. 아이닥터(Eye doctor)라고도 부른다. 시력 측정이나 안경, 콘택트렌즈 처방을 위해서는 검안사(Optomtrist, 옵토메트리스트)를 방문할 수 있다.

**Orthopedist 정형외과전문의(오쏘피디스트)**  
뼈나 관절의 염증을 비롯하여 영양장애나 신경장애로 인한 변화, 선천성 질환 등을 취급하는 외과의사다. 뼈와 관절의 교정이나 기능회복 등을 목적으로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

**Cardiologists 심장전문의 (카르디올로지스트)**  
내과전문의 중 심장을 전공하여 심혈관 질환, 즉 심장과 혈관 관련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이다. 심장마비,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부정맥, 고혈압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만나는 전문의다.

**Otolaryngologist 이비인후과전문의 (얼터러린골로지스트)**  
귀, 코, 목, 식도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로 이엔티 닥터(ENT doctor)라고도 부른다. ENT는 눈, 코, 목(Eye, Nose, Throat)의 줄임말이다. 청각 장애, 귀 염증, 이명 또는 귀의 통증 등은 물론이고 귀와 관련된 선천성 질환도 치료한다.

# 구영순 메디케어·메디칼 구소라

(213)595-4700

무/료/상/담

(213)925-7547

-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받으실 분
- 메디케어, 메디칼, HMO보험 있으신 분  
더 많은 혜택의 플랜 변경 도와드립니다.
- 이사, 직장보험 탈퇴, 신분의 변화 있으신 분
-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 SNP 특별혜택 가능
- 더 많은 OTC, 무제한 한방 침, 한약, 부황, 뜸...
- 치과, 안경, 보청기,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 수영, 탁구... 월 보조금 지급

### 구영순 메디케어 칼럼

## 4 메디케어가 무엇인가요?

메디케어의 종류(국가보험 A&B/민간보험 C&D)  
메디케어는 파트 A: 병원 입원보험, 파트 B: 의료 보험, 파트 C: 우대보험, 파트 D: 처방 약 보험의 4가지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10년 이상 즉 40쿼터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 납부자는 특별한 파트 A 보험료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0년의 40쿼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모자라는 부분을 몇 년 더 세금 보고를 해서 채우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기간 부분만큼 보험료를 지불하고 파트 A 보험을 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고 파트 A 보험을 사서 사용해도 된다. 파트 A 혜택은 병원 입원, 재활 시설, 홈케어, 호스피스 케어와 같은 의료비의 80%에 대한 혜택을 메디케어에서 받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은 세금보고를 안 했지만 배우자가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 했다면 배우자와 같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의 장애자도 24개월 장애 인 혜택을 받은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B를 받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메디케어 처음 가입 시기는 65세 생일 달의 앞, 뒤 3개월 즉 7개월이다.)  
전화상담 구영순. (213) 595-4700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상당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는 플랜**

있습니다

[무료상담/가입 의무 없음]

[전화예약 후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NA메디케어 칼럼니스트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선스 에이전트  
CA LIC. #OF37947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선스 에이전트  
CA LIC. #OF30104

## 수호천사보험

“정직합니다. 실력과 경험도 풍부합니다.”

2140 W. Olympic Blvd. #214, Los Angeles, CA 90006

구영순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www.seoulmedicalgroup.com](http://www.seoulmedicalgroup.com)





까끌까끌 메밀면,  
알싸달달 **양념장!!**  
시원하게 즐기세요  
메밀막국수

